

현대 목회 실천을 위한  
칼빈의 영성 고찰

指導 황 금 봉 教授

이 論文을 碩士學位 論文으로 提出함

2005년 1월 21일

영 남 신 학 대 학 교 대 학 원

실천신학전공

임 성 례

임 성 례의 석사 학위논문을 인준함

주심 황 금 봉 인

부심 김기영 인

부심 이승오 인

영남신학대학교 대 학 원

2005년 1월 21일

## 감사의 글

하나님의 은혜로 또 배움의 한 과정을 마쳤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것 이라 생각하고 이 지식에 더욱 가까이 가고 싶어 두려운 마음으로 신학을 시작했습니다. 9년의 과정을 마친 지금, 두려움과 부족함은 여전히 남아 있지만, 흔들릴 때마다 강하게 붙잡아주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었기에 이 논문과 함께 지금의 제가 있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앞으로의 삶도 인도해 주실 것을 믿고 그분의 이끄심에 순종하며 한걸음 한걸음 나아가려고 합니다.

본 논문이 나오기까지 누구보다도 주제설정에 도움을 주시고 논지를 가다듬도록 세심하게 지도해주신 황금봉 선생님! 자상하면서도 엄격하게 가르쳐 주시고 이끌어 주신 정경호 선생님! 안승오 선생님! 대학원장 권순구 선생님! 그리고 영신대에서 공부한 9년 동안 정성을 다해 지도해주신 선생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선생님! 감사합니다.

부족한 딸을 믿어주시고 기도와 사랑으로 끝까지 옆에서 지켜봐주신 아버지, 어머니 고맙습니다. 그리고 부족한 영성과 짧은 학문성으로 인하여 절망하고 넘어질 때 힘과 용기를 심어준 사랑하는 가족들에게도 감사를 드립니다.

작지만 귀한 결실이 완성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위로와 격려를 아끼지 않으신 모든 분들, 그리고 교정을 봐주신 전도사님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2005년 1월 21일

임 성 례

# 목 차

I. 서론 .....	1
A. 연구의 목적 .....	1
B. 연구의 방법과 범위 .....	4
II. 목회에 대한 이해 .....	5
A. 목회의 개념 .....	5
B. 목회의 역사 .....	8
1. 구약시대의 목회 .....	8
2. 예수님의 목회 .....	8
3. 개혁자들의 목회 .....	9
4. 근세의 목회 .....	10
5. 현대의 목회 .....	10
III. 영성에 대한 이해 .....	11
A. 성서의 영성 .....	11
B. 초대교회 영성 .....	13
C. 교부들의 영성 .....	15
1. 이레니우스 .....	15
2. 동방교회 .....	16
3. 서방교회 .....	16
4. 위 디오니시우스 .....	17
D. 수도원의 영성 .....	18
E. 종교개혁자들의 영성 .....	22
1. 루터 .....	22
2. 츠빙글리 .....	24
3. 칼빈 .....	25

F. 근대 영성 .....	27
G. 현대 영성 .....	27
<b>IV. 칼빈의 영성 .....</b>	<b>29</b>
A. 칼빈의 생애 .....	29
B. 칼빈 영성의 본질 .....	32
1. 기독교강요 제1판 .....	32
2. 칭의와 성화 .....	34
3. 경건의 개념 .....	36
C. 칼빈의 제네바 목회 .....	38
1. 1차 제네바 목회 .....	38
2. 2차 제네바 목회 .....	40
D. 그리스도인의 삶 .....	43
1. 자기부인 .....	43
2. 십자가를 짊어 .....	44
3. 내세에 대한 목상 .....	46
4. 현세의 선용 .....	47
5.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	49
<b>V. 현대 목회 실천을 위한 칼빈의 영성 적용 .....</b>	<b>50</b>
A. 현대목회자들이 본받아야 할 칼빈의 영성목회 .....	50
1. 말씀이 살아있는 목회 .....	51
2. 목회자의 삶에 관심을 가진 목회 .....	52
3. 교회의 일치성을 위한 목회 .....	53
4. 영성 목회 .....	53
B. 현대 목회실천을 위한 칼빈의 영성 훈련 .....	54
1. 설교론에 나타난 칼빈의 영성 .....	54

2. 예배론에 나타난 칼빈의 영성 .....	55
3. 성례전에 나타난 칼빈의 영성 .....	56
4. 기도에 나타난 칼빈의 영성 .....	58
5. 복종과 섬김에 나타난 칼빈의 영성 .....	62
6. 청빈에 나타난 칼빈의 영성 .....	63
7. 고독에 나타난 칼빈의 영성 .....	64
<b>VI. 결 론</b> .....	65
A. 요약 .....	65
B. 칼빈의 영성과 현대목회의 전망 .....	68

참고문헌

# I. 서론

## A. 연구의 목적

최근 목회와 신학에 있어서 영성이라는 말만큼 유행하는 말도 없을 것이다. 오늘날 많은 기독교잡지가 거의 빠지지 않고 연재하는 내용 중의 하나가 영성에 관한 것이다. 이토록 유행처럼 번지는 이유 중 하나는 현대의 급변하는 사회 속에서 우리의 신앙과 신학 그리고 목회와 삶에 있어서 자신의 정체성과 가야할 방향을 잃어버렸기 때문이라고 말할 수 있다.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가야할 삶의 목표나 또한 목회자로서 사람들을 인도해야 할 목회적 정체성과 방향성을 잃어버렸기 때문이다. 현대의 발전과 성장의 철학에 편승한 성장 지향적 목회가 더 이상 효력을 발휘하지 못한 상황에서 목회가 자신의 정체성을 새롭게 모색하려는 노력이 오늘날 목회에 있어서 영성적 차원이 새롭게 제기되고 있는 이유이다.

16세기 영국 산업화가 시작된 이래 인간사회는 끊임없이 인간 내면의 본질적 욕구와 충족에 의한 사고적 존재로서보다는 오히려 상황적이고 문명, 물질적인 주변세계에 의해 이끌려지는 수동적 존재로 하락되어지고 있다. 그러나 인간이 물질과 문명의 상황적 실존으로 존재하면서도 그 내면적 본질에 대한 염원의 깊은 뿌리를 결코 저버리지는 못했다고 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시대적 이끌림에 의하여 너무도 쉽게 세속적이고 현상적인 세계에 치중하여 있는 것이 사실이다.

1960년에 들어서면서 미국과 유럽을 시작으로 서서히 전 세계적으로 불기 시작한 민주화, 자유화라는 다양한 변화와 실험적 삶을 경험하게 되면서 드디어 인간의 공동체적 삶의 경험보다는 '개별적인 자기 가치'에

치중되는 생활 패턴에 함몰되고 말았다. 결국 인간은 어떤 공동체적 의미와 가치에서 벗어나서 ‘개인과 자신’이라는 인간이해에 치중하면서부터 신학이나 철학보다는 프로이드와 융의 인간 심리학이 급부상 하는 새로운 인간문화의 질을 형성해 나가게 되는 것이다. 인간은 절대 진리의 기준이나, 가치에 얽매이거나 연연해 할 필요보다는 자신이 행할 수 있는 만큼의 진리와 도덕 행위 기준들의 이해와 발전들이 종교와 사회 전반에 만연한 ‘적절한 인간 가치’를 형성해 내고 있다고 보여 진다.<sup>1)</sup>

이러한 시대적 흐름에 대한 교회적 대안과 대담으로 ‘영성신학’이 발전되었고<sup>2)</sup>, 오늘의 교회 현실을 한마디로 일컬어 영성의 위기시대라고 한다. 도날드 블러쉬(Donald G. Bloesch)는 그의 저서 『The Crisis of Piety』 (경건의 위기)라는 책에서 현대 개신교가 점점 생명력을 상실해 가고 있는데 그 주원인을 경건생활의 결여에 두고 있다. 그는 ‘현대 개신교 신학교들이 경건한 사람들을 양성하기보다는 신학자들을 양성하는데 초점을 두고 있으며, 개인의 영성생활에 대해서는 침묵하는 것처럼 되어있다’<sup>3)</sup>라고 신학교육에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그러한 성향이 교회 전 영역으로 확산되어 개인의 신앙생활에 대해서도 침묵하는 것을 미덕으로 삼게 되었

---

1) 황금봉, “포스트 모던 시대와 영성의 기독교 교육” 『2004년 영성대학 자료집』 (대구: 경북노회 에큐메니칼 영성훈련원, 2004), p. 1.

2) 오먼은 “영성신학은 신학의 일부로, 신적 계시의 진리와 개개인들간의 종교적인 경험으로부터 시작하여 초월적인 삶의 본성을 규명하며, 그 삶의 성장과 발전을 위한 지침을 제시하며 영성생활의 시작부터 완성에 이르기까지의 과정을 서술한다”고 하였다. 다시 말해서 영성신학은 그리스도의 영성과 완덕을 추구하는 한편, 기독교 신앙의 본질과 그리스도인의 실천적인 삶에 관심하며 연구하는 실천신학의 한 분야라고 정의할 수 있다. 홍성주, 『21세기 영성신학』 (서울: 은성, 1995), p. 23 참고.

3) Donald G. Bloesch, 『The Crisis of Piety』 (William B. Eerdmans Publishing Company, 1968), p. 39.



다는 것이다. ‘개신교 교회는 내면세계나 영성생활에 대한 탐구나 훈련보다는 외적인 활동에 더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 특히 그러한 경향은 개혁 교회 노선에 속한 교회일수록 더욱 심화되어 있다고 불러쉬는 지적한다.

이러한 영성의 위기에 직면하고 있는 한국교회와 목회자들이 어떻게 극복해 나가야 할 것인가에 대해 본인은 장로교의 신학바탕이라 할 수 있는 칼빈의 신학과 영성을 제시할 수 있다고 생각되어진다. 칼빈은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영광과 자신의 신학적 실천을 위하여 열정적으로 삶을 살았던 사람이었다. 우리는 그에게서 개혁주의 신학 전통이 지향하는 독특한 영성의 성격과 방향이 어떠한 것인지를 발견할 수 있으며, 동시에 오늘 우리 시대의 신학과 교회가 쉽게 간과하고 있는 하나님과 초월적 삶에 대한 진지하고 전폭적인 열망을 풍성하게 공급받을 수 있다고 믿는다. 특별히 최근에 일고 있는 ‘영성’에 대한 교회 안, 밖의 다양한 운동들이 다분히 인본주의적이고 신비주의적이며 혼합주의적인 성향에 치우쳐 있는 것을 볼 때, 칼빈의 영성은 이에 대한 매우 효과적인 비판과 적절한 대안을 제시해 줄 수 있다고 확신한다. 이는 성경적으로 온전하고 균형 잡힌 진정한 기독교적 영성의 개발과 모색에 있어서 매우 유익한 모델이 될 것이기에 그러하다.

본 논문은 칼빈이 일생을 두고 변함없이 열정적이었던 경건한 생활 실천적 영성에 대해 고찰해봄으로써 한국교회의 영성 방향을 명확히 제시하고 성서적이고 개혁신학적인 영성내용을 목회 현장에서 보다 분명하게 다루어지고 이해되어질 수 있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다.

## B. 연구의 방법과 범위

본 논문의 전반적인 연구 방법은 영성에 관계된 각종 문헌과 영적 성장에 관한 자료들을 참조하였다.

본 논문은 총6장으로 구성되는데, 제 I 장은 서론부분을 다루게 될 것이다.

제 II 장에서는 목회에 대한 개념과 목회의 역사를 살펴볼 것이다.

제 III 장에서는 영성에 대한 성서의 관점 및 초대교회와 교부들의 이해로부터 종교개혁자들의 영성, 근대영성, 현대영성의 이해까지를 살펴 보게 될 것이다.

제 IV 장에서는 칼빈의 영성을 심도 있게 서술하기 위하여 첫째, 칼빈의 생애를 고찰하여 볼 것이며, 둘째, 칼빈의 영성이 가지는 본질적인 요소는 무엇이고 그 특징들은 무엇인가를 다룰 것이다. 셋째, 칼빈은 말씀 중심의 목회를 하였다. 그래서 칼빈 자신이 직접 목회에 전념한 것으로 알려진 제네바에서의 목회생활을 중심으로 논제들을 풀어가고자 한다. 넷째, 그리스도인이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야하는 삶을 다룰 것이다.

제 V 장에서는 현대 목회 실천을 위한 칼빈의 영성을 살펴보고자 한다. 현대 목회자들이 본받아야 할 칼빈의 영성 목회와 목회자로서 마땅히 행해야 할 영성의 실천적인 측면을 자세하게 고찰하고자 한다. 그것은 우리가 추구해야 할 기독교적인 영성은 학문적인 연구로 끝나는 것이 아닌 삶의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실제적인 영성이 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제 VI 장 결론에서는 내용 요약과 칼빈의 영성을 중심으로 현대목회를 전망해봄으로서 그 결론을 맺고자 한다.

## II. 목회에 대한 이해

### A. 목회의 개념

목회(ministry)는 교역(敎役)이라고 번역될 수 있는데,<sup>4)</sup> 교회에 봉사하는 일로서 목사가 실행하는 모든 행위와 사역을 지칭한다. 목회는 일반적으로 설교, 성례전, 교회의 관리 및 운영, 평신도 지도, 훈련, 및 교육 등의 제반활동들을 망라하고 있다.

목회라는 말의 어원은 헬라어 ‘디아코니아’의 라틴어 표현이 영어화 된 것을 번역한 것이다. 그래서 목회라는 말의 어원적 뿌리는 ‘디아코니아’에 둔다. 이 말의 동사형 ‘διακονεω’는 희랍의 고전에서 ‘식탁에서 시종들다’라는 뜻으로 사용되어졌다. 때로는 여자들이 어떤 것을 ‘제공하다’라는 의미로, 또는 ‘섬기다’라는 의미로 사용되기도 했다. 이 말은 본래 하급자가 상급자에게 종속의 관계에서 구체적인 섬김의 행위를 수행한다는 뜻을 가진다. 즉 목회의 어원적 의미는 주종의 관계 안에서 섬김이라는 구체적인 행위를 수행한다는 뜻이다. 이 말이 기독교 내에서 사용되어지면서 의미의 변화를 겪게 된다. 물론 이 말의 문자적인 뜻은 그대로 남는다. 즉

---

4) 데이빗 위얼스비(David Wiersbe)와 워렌 위얼스비(Warren Wiersbe)는 목회라는 용어는 히브리어나 헬라어 번역으로 볼 때 기본적으로 <다른 사람을 섬기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며 <ministry>는 라틴어에서 유래된 것으로 단순한 “종”의 사역을 의미한다고 했다. 그들은 “ministry”의 원리를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있다. ① 목회의 기초는 인격이다. ② 목회의 본질은 봉사이다. ③ 목회의 동기는 사랑이다. ④ 목회의 척도는 희생이다. ⑤ 목회의 권위는 순종이다. ⑥ 목회의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이다. ⑦ 목회의 도구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이다. ⑧ 목회의 특권은 성장이다. ⑨ 목회의 능력은 성령이시다 ⑩ 목회의 모델은 예수 그리스도시다. 이주영, 『현대목회학』 (서울: 성광문화사, 1985), p. 13을 참고.

기독교 내에서도 ‘식탁에서 시중든다.’라는 의미로 사용되었다. 그러나 예수께서 시중을 드심으로 누가 누구에게 시중드느냐라는 관점에서 의미의 변화가 일어난다. 예수께서 제자들의 발을 직접 씻기심으로써 하급자가 상급자를 섬기던 섬김의 구조가 오히려 상급자가 하급자를 섬기는 구조로 변화를 겪게 된다. 그리고 여인들이 제공한다는 뜻으로 사용되던 관점에서도 변화가 일어난다. 즉 예수와 함께 하던 여인들이 자발적으로, 사랑의 표시로 이웃에게 먹을 것, 입을 것을 제공함으로써 전에 의무감으로 어쩔 수 없이 제공하던 것에서 사랑으로 자발적으로 제공한다는 것으로의 변화가 일어나게 되었다. 기독교 안에서 ‘목회’란 말이 사용되면서 원래의 의미에 구조적인 변화가 일어났다. 이를 정리해보면 두 가지이다. 첫째는 섬기는 사람과 섬김을 받는 사이의 관계 변화이다. 마땅히 섬겨야 하는 사람이 아니라 섬김을 받아야 할 사람이 섬기는 관계의 역전이다. 둘째는 의무에서 사랑으로의 변화이다. 즉 마땅히 섬겨야 할 사람이 의무적으로 섬기는 것에서 사랑으로 자발적으로 섬기는 것으로의 변화를 말한다. 결국 목회라는 말의 어원적 의미는 관계의 역전 안에서 의무가 아니라 자발적인 사랑에 기초해서 섬기고 봉사하는 행위를 말한다.<sup>5)</sup>

스위스 바젤 대학의 실천신학 교수로 봉직했던 에드워드 투르나이젠(Eduard Thurneysen) 박사는 그의 대표적 저작인 『목회학 강의』에서 다음과 같이 서술하고 있다.

목회는 인간의 영혼을 돌보아 주는 일이다. 그런데 실천신학의 한분과로서 목사의 신학적 실제적 훈련을 위한 목회학을 관심의 대상으로 삼는 인간의 영적인 것뿐만 아니라 성경이 말한 대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게 마련인 몸과 영이 하나가 된 인격적인 전인으로서의 영혼인 것이다. 인

---

5) 정범모, 『교육과 교육학』 (서울: 배영사, 1976), pp. 16-26.

간이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존재라는 인식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에 기초하고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목회는 하나님을 위한 전인의 성화를 과제로 한다.<sup>6)</sup>

토마스 오덴(Thomas C. Oden)은 “이웃을 섬김으로 하나님을 섬긴다는 이 기본적인 섬김의 패턴을 무시하거나 배제 할 때에 목사의 직책에 대한 어떤 개념도 훌륭하게 정의 될 수 없을 것이다”<sup>7)</sup>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다.

유해룡 교수는 목회의 의미를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예수님께서서는 율법의 대강령으로서 ‘네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이와 같이 네 이웃을 네 몸처럼 사랑하여야 할 지니라’고 하셨다.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목회의 상호관련성을 인식해야 한다. 즉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 그리고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를 말한다. 목회자가 목회를 한다는 말의 본질은 자기 자신과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해서 철저한 성찰을 전제하며 그 결과로 하나님께 대한 성실한 반응으로서 사람들을 돌보는 행위에 있다. 그래서 목회자는 대상자로 하여금 하나님과의 밀접한 관계형성을 도와주며 동시에 이웃을 향하여 적절한 반응을 하도록 인도해 주는 매개체이다.<sup>8)</sup>

목회는 어떤 프로그램이나 인간관계 이전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살피고 그 결과로 이웃을 향하여 적절한 반응을 하도록 인도해주는 것임을

---

6) *Ibid.*, p. 15.

7) Thomas Oden, 『목회신학』 오성춘 역 (서울: 대한예수교장로회 출판국, 1987), p. 122.

8) 유해룡, “영성목회에 대한 진단과 제언”, 『신학과 문화』 제5집 (1996), p. 250.

알 수 있다.

## B. 목회의 역사

### 1. 구약시대의 목회

목회는 개개인의 영혼과 삶의 전반적인 문제에 직접 관심을 가지고 치료해 주는 것이다. 구약시대의 목회는 하나님의 선민인 이스라엘 제사장들에게서 찾아볼 수 있다. 백성들이 제사장에게 상담을 요청할 때 제사장들은 우림과 둠뭇을 사용하였다. 그리고 사사시대와 그 말기 사무엘 시대에는 백성들이 소송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나 생활의 지혜를 얻기 위해서 선지자나 선각자를 찾았고(삼상 9:9), 심지어 잃어버린 물건을 찾기 위해 묻기도 했다(삼상 9:5-10). 나단이나 이사야와 같은 선지자들은 왕들, 즉 다윗과 히스기야 왕을 위한 특별목회도 했다. 포로시대나 포로기 이후의 선지자들은 국가적이고 민족적인 단체적 목회보다는 차츰 개인적인 문제를 취급하는 목회 역할을 담당했다.<sup>9)</sup>

### 2. 예수님의 목회

예수님은 목회자의 모범이며 그의 목회는 목회학의 원천이다. 예수님은 자신을 친히 '선한 목자'라고 말씀하셨다(요 10:11). 그는 잃은 양을 찾는 목자이셨고, 많은 병자를 치료하셨으며, 세상의 재물과 욕심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을 자유케 하셨다. 사마리아인의 비유(눅 10:25-37)에서 보여 주신 바와 같이 상처받아 죽을 수밖에 없는 영혼을 보살피시고 돌보시는 일을 친히 행하셨다. 그는 가난한 자들, 죄인들과 소외된 자들인 병

---

9) 이상운, 『목회학』 (서울: 대한예수교장로회출판국, 1992), p. 17.

자, 세리, 창기들과 격이 없이 친근하셨다. 그는 모든 사람을 섬기셨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으며(요 13:5-11), 마침내 모든 사람을 위해 십자가 위에서 대속의 죽음을 죽으셨다.<sup>10)</sup>

예수님의 목회의 근본 원리는 '사랑의 힘'으로 백성들을 하나님 앞으로 이끌려고 하셨으며, 언제나 개별적인 방법으로 모든 영혼을 각기 일대 일의 사랑으로 대하셨다. 예수님은 인간 영혼의 문제만이 아니라 육체적 불행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지는 '전인적 목회'의 실례를 보여주셨다.

### 3. 개혁자들의 목회

루터에게 있어서 목회의 제일 관심은 말씀선포였다. 그는 죄인에게 말씀을 선포함으로써 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와 구원받는 것이었다. 교권에 의한 목회 중심인 로마 카톨릭에 반하여 말씀선포를 중심으로 죄인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영혼구원에 목회의 중심을 두었다.<sup>11)</sup>

칼빈은 하나님의 주권과 말씀의 선포가 목회의 중심이었다. 그는 교회의 권징을 강조했고, 가정심방도 하여 개인적 삶에 관심을 가졌다. 특히 그가 가정심방을 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성도들의 특별하고 구체적인 환경에서 전달되기 위함이었고, 또 영혼에 대한 개인적인 보살핌을 실천하기 위함이었다. 또한 교회정치 활동도 적극적으로 시도하여 정교 분리의 원리도 확립했고, 소위 개혁과 교회정치 제도를 확립하여 교회조직도 구체화하였다. 칼빈의 목회는 말씀 사역과 개인적인 관심과 교회조직 및 행정적 사역 등 입체적 목회였다.<sup>12)</sup>

---

10) *Ibid.*, p. 18.

11) *Ibid.*, p. 19.

12) *Ibid.*

#### 4. 근세의 목회

16세기 목회는 동기와 태도에 관심이 집중되었고, 17세기에 와서 박스터(R. Baxter)가 저술한 『개혁교회의 목사』라는 책이 나왔다. 그는 이 책에서 주로 목회자의 책임에 대해 말하였다. 그러나 목회학이 신학의 한 부분으로 신학계에서 인정을 받게 된 것은 18세기 중엽에 클라우스 하름스(K. Harms)가 목회신학에 관한 저서를 출판할 때부터이다. 목회신학에 대해 여러 학자들이 관심을 보였다. 칼빈은 영혼의 치료가 목회신학의 중요한 부분이라고 했고, 쉴라이에르마허(Schleiermacher)는 교회를 보존하고 완전케 하는 방법이라고 했다.<sup>13)</sup>

20세기에 접어들면서 목회학이 활기를 찾게 되었는데, 큐러(Tholor L. Cuyler)는 『목사가 되는 길』을 저술하여 목회자의 자질, 품성, 소명의식 등에 대하여 설명했고, 제퍼슨(Charles F. Jefferson)은 『목양자인 목사』라는 책을 발간하여 목사의 자격, 목사가 위임받은 하나님의 양떼를 목회하는 일에 대해 설명하였다.<sup>14)</sup>

#### 5. 현대의 목회

첫째, 오늘의 목회 동향은 개혁자들의 영향을 받아 말씀선포에 치중하고 있다. 그래서 신학교에서는 설교학에 큰 비중을 두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으며, 사실 목회학에 대한 책보다 설교학에 관한 책이 상당수임을 보아도 알 수 있다.<sup>15)</sup>

둘째, 현대의 목회에 있어 중요한 과제는 영성을 회복시키는 일이다. 목회자의 영성은 성도들을 지도하기 이전에 그 자신이 먼저 성령에 충

---

13) *Ibid.*

14) *Ibid.*

15) *Ibid.*, p. 20.



만함을 받아 성령의 지배를 받고 지도를 받는 것이다. 목회자가 영성이 있느냐 없느냐의 기준은 그가 얼마만큼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자기를 죽이고 십자가에 못 박는가에 좌우된다. 목회자가 정치적 재치, 운영의 재빠름, 전문 경영인의 노련함 등은 지니고 있지만 영성이 없다면 그의 영적인 생명력은 소실되었다고 볼 수 있다. 교회가 성령에 의해 지배되고 부흥 성장할 수 있다고 믿는 개혁주의 신학의 틀에서는 것처럼 영적 생명력이 소실된 목회자의 사역은 결코 성공할 수 없다. 그리고 영적 생명은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순종을 받아들이고 성도를 향해, 이웃을 향해 나가는 것이다.

셋째, 목회상담을 강조하여 각 신학교는 상담학을 가르치고 있으며 교육하는 목회 쪽으로 기울어져 성경연구를 강조하는 것을 볼 수 있다.<sup>16)</sup>

### Ⅲ. 영성에 대한 이해

#### A. 성서의 영성

기독교적 관점에서 볼 때, “영성”은 우리로 하여금 그 단어의 어근이 되는 “영”이라는 단어의 중요성을 인식하게 한다. “영”이라는 단어는 중요한 성경적 용어이다. 히브리어 루아흐(ruach)와 헬라어 프뉴마(pneuma)는 숨, 바람, 그리고 영을 의미한다.<sup>17)</sup>

B. D. B<sup>18)</sup>사전에 의하면, 루아흐는 맛소라 본문 전체에서 378회

---

16) *Ibid.*

17) Bradley P. Holt, 『기독교 영성사』 엄성욱 역 (서울: 은성, 1996), p. 19.

나온다. “숨”을 뜻하는 경우가 33번, “바람”을 의미하는 경우가 117번, “정신”이 76번, “생명력”이 25번, “기분”, “감정”의 기본이 되는 자리로서가 3번, 정신적 활동의 자리, 혹은 기관(氣管)으로서 9번, 인간의 의지로서가 3번, 도덕적 성품으로서 18번, 그리고 하나님의 영으로서 하나님과 관련해서 94번이다. 이것을 크게 세 가지로 분류하면 첫째, 기상학적 현상인 바람으로서의 루아흐, 둘째로는 사람 안에서 작용하는 각종 능력, 기분, 정서와 관련된 루아흐, 셋째로는 하나님과 관련된 루아흐다.

구약성경은 인간을 전인격적인 존재로 말한다. 그 전인격적인 존재로서 인간이 영적인 존재라는 사실도 분명히 밝히고 있다. 하나님의 영은 창조된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인간이 하나님과 지속적인 교제를 갖도록 인도하고 있다. 바로 하나님과 교제 가운데서 살아갈 때 우리의 영성이 온전해 짐을 말한다.

신약의 프뉴마는 복음서에서 105번, 사도행전에서 69번, 바울서신에 161번, 공동서신에 27번, 계시록에서 23번 등 모두 385번 사용되었다.<sup>19)</sup>

신약의 영성은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그 구심점은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하나님의 약속에 의해 파송하신 성령에 근거하고 있다. 신약에서 예수님의 복음전파와 성경해석, 그리고 그의 행위의 중심에는 하나님과의 연합 및 영적 교제가 자리 잡고 있으며, 바울에게서 명백히 드러나듯이 그리스도를 닮아 가는 그리스도인들의 영성은 그리스도와의 지속적인 교제와 더불어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능동적, 실천적 특성을 가진다.<sup>20)</sup>

---

18) S. R. Driver and Charles A. Briggs, 『Hebrew and English Lexicon of the Old Testament by Francis Brown, S. R. Driver and Charles A. Briggs』 (Oxford, 1953), pp. 924-926.

19) 정인찬, 『성서 대백과』 (서울: 기독지혜사, 1981), p. 81.

20) 박한, “21세기 교회 영성에 대한 조망.” (미간행석사학위논문, 총신대)

## B. 초대교회 영성

초대교회의 태동은 성령의 활동적이고 역동적인 강한 역사로 시작되었다. 기독교에서의 성령의 위치는 처음부터 중요했다. A. D. 80년에 기록되었을 사도행전에는 30년대부터 60년대에 이르기까지의 초대교회시대, 즉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부터 바울이 로마에 도착하기까지의 기간에 대해 기록한 것이다. 사도행전2장은 오순절에 성령이 부어진 사건을 기록하고 계속해서 성령의 능력에 대해 언급함으로써 초대교회의 발달에 있어서 성령의 역할을 강조한다.

오순절 성령강림이야말로 복음을 온 세계에 전파할 수 있는 용기와 능력의 창출사건이며, 교회가 탄생된 배경임을 말해주고 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성령을 기다렸으며, 날마다 모여 영성에 힘을 기울였다.<sup>21)</sup> 그들은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면서, 모여서 말씀을 연구하고 전혀 기도에 힘쓰며, 서로 사랑을 나누고 구제에 힘썼으며 서로 애찬을 나누고 하나님을 찬양하였다. 즉 초대교회는 영성의 훈련과 생활이 조화되었다. 말씀공부(행 2:42, 3:12, 고전 11:23, 15:11), 합심기도(행 1:14, 2:4, 3:1-4), 교제(행 2:6, 3:11, 4:32), 청빈·구제·봉사(행 2:44-45, 4:32-37, 6:1-6), 금식(행 13:2-3, 1:32), 복음전도(행 1:8, 2:4, 3:11, 4:31), 섬김(고후 4:), 병자들을 위한 봉사(행 3:1-9, 3:12-16, 19:11-12)등 사도들은 이러한 영성 생활을 계승하였고 신학적으로 정립하였다.<sup>22)</sup>이렇게 초대교회는 성령의 역사로 시작되었다.

---

대학원, 2003), p. 8.

21) 엄세천, 『영성 생활』 (서울: 기독교한국 연수원 출판부, 1986), pp. 23-24.

22) 민경배, 『영성의 역사적 뿌리』 (서울: 연세대출판사, 1985), p. 343.

성령의 역사로 시작된 초대교회는 예수의 공생애 행적과 죽으심과 부활을 믿게 하는데 초점을 두었다. 그것은 예수의 오심과 삶과 십자가와 부활은 틀림없는 역사적 사건이요 이러한 체험은 성령의 도우심을 통해 우리가 예수를 메시아로 신앙고백 하게 된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사도들이 전한 메시지에서 볼 수 있는 원초적 복음은 바른 그리스도론의 기초가 되는 것이요, 바른 신앙의 근본임을 알 수 있다. 용기를 가지고 담대히 메시지를 전한 사도들의 모습은 초창기의 영성의 한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다.

유대교가 디아스포라의 회당에서의 회중 예배의 형태로 발전한 것과 같이, 기독교인도 공적인 공동예배가 영성의 근본이라고 생각했으며, 대부분의 초대교회 교인들은 영성은 예배시간 특히 성례전에 참여하는 것이라고 생각했다. 사도행전에서 그 시초를 알 수 있는데 일주일 중 첫째 날은 떡을 떼기 위해 회집하였다. 이 예배의 주된 목적은 예수님의 부활을 축하하는데 있었다. 기독교인들은 처음에는 소수의 집단들로서 모였지만, 나중에는 대규모의 회중이 매주일 기도와 복음전파와 성찬식을 위해 교회당에 모였다.

거기서부터 생겨나는 영성생활의 형태가 하나의 양식을 이루게 되었다. 찬송을 통해서, 설교를 통해서, 성경을 읽는데서, 그리고 성만찬 중심으로 예배를 형성하는 것이 영성생활의 중심이었다.

또한 기독교적 예배에 있어서 성만찬 다음으로 중요한 큰 사건은 세례였다. 당시 성만찬에 참석하기 위해서는 먼저 세례교인이 되어야 했다. 공동체에 가입하는 입문식으로서 세례를 베푸는 것은 옛 생활이 종식되고 새 생활이 시작되는 것을 의미했다. 어떤 사람들은 세례는 과거 생활에서 지은 죄의 용서를 의미하며 새 생활에서는 죄가 없이 완전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여겼다.

성만찬 중심의 예배는 교육을 통한 기독교적 삶의 증거를 요구하

는 세례교육이 있게 했다. 처음 몇 세기 동안의 기독교 영성은 세례 속에서 형성되었으며 회중 예배에 뿌리를 두며 매주일 주님이 제정하는 만찬을 기념함으로써 양육되는 종교단체의 영성이었다. 이것은 성례전 중심의 예배가 주는 초대교회 영성의 또 다른 특징이라 할 수 있다.

## C. 교부들의 영성

### 1. 이레니우스

이레니우스(Irenaeus, 136-202)는 교회의 인물로서, 교회의 평화를 위해 노력하였고 또한 교인들의 양육에 깊은 관심을 가졌다. 그의 주요 저서로는 『이단 사상에 반대하여』와 『사도적 교훈의 증명』 등이 있다. 이레니우스는 ‘이단 논박’에서 사도들로부터 전해 받은 신앙으로서 ‘신앙규범’을 제시하였는데, 이것은 사도신경의 전 단계에 해당되는 것이었다. 그는 또한 둘째 아담 그리스도가 순종으로 첫째 아담의 실패를 회복하여 완성했다는, 그리스도의 ‘만유 총괄 갱신설’(the theory of recapitulation)교리를 주장하였다. 인류는 본래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하나님을 닮도록 부름을 받았으나 불순종하고 큰 고통을 당하였다. 그러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나님께 순종한 본을 따라, 이제 모든 인류가 하나님을 닮아 ‘신화’(deification)될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것이다. 여기서 이레니우스의 성경적 구속사 신학을 보게 된다. 이레니우스의 구속사 신학은 이후에 니케아 공의회(325-381)의 삼위일체론과 칼케돈 공의회(451)의 그리스도의 양성론으로 교리화 되었다. 그의 영성을 요약하면 “말씀(하나님)이 그의 한없는 사랑으로 우리와 같은 인간이 되시는 것은 우리 인간을 자기 자신과 같은 존재로 만들기 위함이다.”<sup>23)</sup>

## 2. 동방의 영성

동방교회는 구원을 인간의 영혼과 육체가 그리스도를 따라 하나님을 끊임없이 닮은 '신화'로 규정하였다. 인간이 하나님처럼 될 수 있는 것은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기 때문이며, 그리스도가 성육신하신 것은 인간으로 하여금 하나님처럼 될 수 있게 하기 위함이라고 하였다. 특히 성육신은 신성과 인성의 연합의 표본이었다. 또 성령은 신자들로 하여금 실제로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게 한다고 하였다. 신자들은 성령의 역사로 교회의 성례전과 그리스도인의 삶을 통해 신화 되는 것이다. 동방교회의 영성은 성령론 중심적 영성으로서 영혼이 끊임없이 진보하는 성장 과정을 강조하였다.<sup>24)</sup>

## 3. 서방의 영성

서방 교회의 영성은 어거스틴 (St. Augustine, 354-430)에 의해 기초가 놓여졌다.<sup>25)</sup> 어거스틴은 무엇보다 영혼의 실체에 관심이 많았다. 그리고 세상으로부터 이탈하여 인간 내면의 영혼 안으로 들어가서 진리이신 하나님을 만나는 내면적 영성의 길을 제시하였다. 그래서 그는 '고백록'에

---

23) 류기종, 『기독교 영성』 (서울: 열림, 1994), pp. 33-36.

24) Bernard. McGinn, J. Meyendorff, Jean. Leclercq, 『기독교 영성 I』 유해룡, 이후정, 정용석, 엄성옥 공역 (서울: 은성, 1997), pp. 160-166 참고.

25) 어거스틴은 영성사에 있어서 그는 매우 중요한 사람이었다. 그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진리를 추구하는 가운데 신학자가 되었다. 특히 그의 체험 속에서 나온 고백록은 그의 영성의 틀을 세워 주고 있다. 특히 그는 관상적 수도 생활과 봉사적 활동 생활의 조화를 강조했다. 어거스틴이 생각한 바람직한 영성이란, 하나님과 깊은 영적 관계를 추구하는 관상의 삶과 타인과의 관계, 다시 말하면 가정과 교회와 사회와 같은 공동체적인 삶속에서 봉사와 섬김의 삶을 지향하는 활동적인 생활을 함께 균형을 맞추어 조화시키고 서로 공유하는 것이었다. 이것이 오늘날 영성의 틀에 중요한 기초를 세워주었다.

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안에서 안식을 찾을 때까지 우리의 영혼은 불안하다”라고 말하였다. 그는 또한 헬라 철학의 영혼 불멸론과 대결하여, 영혼이 육체의 부활을 기다리며 안식한다는 성서적 영혼 불멸론을 주장하였다. “영혼은 육체를 다스리기에 알맞은 이성을 갖고 있는 하나의 실체이다 영혼은 비물질적이고, 자유의지가 있고, 추론하고 판단할 정신을 갖고 있다.”<sup>26)</sup>

어거스틴은 또한 인간의 ‘전적 타락’과 ‘오직 은총’의 교리를 토대로 ‘성화’구원론을 주장하였다. 인간의 자유의지는 죄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오직 은총에 의해서만 구원받을 수 있다고 하였다. 여기서 어거스틴은 자연과 은총을 구분하고 창조와 구속을 구분하는 신학적 예리함을 보여주었다. 또한 구원은 은총의 도움으로 인간이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성화의 과정을 이해하였다.

이 후 서방의 로마 카톨릭 교회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속죄사역을 강조하였고, 이 갈보리 희생 제사의 반복으로서의 성만찬과 회개를 위한 성례로서 고해제도를 통해 교회론적 영성을 발전시켰다. 그래서 서방 교회 안에서는 성령에 대한 논의가 적었고, 주로 수도원의 성자들의 삶에서 신비한 영성이 흐르게 되었다.

#### 4. 위 디오니시우스의 영성

아레오바고 사람(Pseudo Areopagite) 디오니시우스(Dionysius)는 교부들 중 후대의 신비주의 영성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사람이었다. 그는 ‘천상의 위계질서’에서 정화된 영혼들, 조명을 받은 영혼들, 완전한 영혼들에 관하여 말하였고, ‘교회의 위계 질서’에서 정화와 조명과 연합을 위한

---

26) Bernard. McGinn, J. Meyendorff, Jean. Leclercq, *op. cit.*, pp. 198-201.

성례들에 대해 설명하였다. 여기서 정화는 정결케 하는 것을 말하고, 조명은 하나님의 빛이 영혼을 비추어 주는 것을 말하고, 연합은 하나님과 하나 되는 체험을 말하였다. 이 세 가지 길은 오리겐에서 시작되었지만, 위디오니시우스에 의해 교리화 되어 이후 동 서방 전체 수도원 영성의 규범이 되었다.<sup>27)</sup>

#### D. 수도원 영성

수도원 운동은 고대 교회가 황제 교회가 되고 세속화되기 시작하자 세상의 소란함을 떠나 사막을 찾아 고요한 영성을 추구하던 사막 교부들에게서 유래하였다. 최초의 사막 교부는 안토니(St. Anthony, 251-356)이고<sup>28)</sup>, 공동체 수도원을 처음 시작한 사람은 파코미우스(St. Pachomius, 286-346)였다.<sup>29)</sup>

3-5세기 동방수도원 정착기에는 로마 제국의 말기적 현상과 종교의 세력 다툼과 교리 논쟁 및 분열로 인해 자연스럽게 은둔적인 수도회가 일어났다. 은둔 수도사들의 영성 훈련방법은 육체적 고행과 노동을 통한 고행이었다. 그들은 노동을 천하게 취급하던 시대에 노동을 신성하게 만들었다. 성 안토니는 홀로 은둔 독거와 기도, 고행, 명상, 노동으로 영향력을

---

27) *Ibid.*, p. 238.

28) 성 안토니(St. Anthony, 251-356)는 이집트 영성의 기원이요, 최초의 독수도자요, 모든 은둔 수도자의 아버지이며 “하나님의 친구”라고 불려졌다. 엄두섭, 『기독교 영성의 흐름』 (서울: 은성, 1998), p. 33.

29) 이집트에서 일어난 수도 공동체 운동의 시작은 성 파코미오(St. Pachomius, 286-346)였다. 최초의 수도원으로서 수도자들은 각자 직업을 목수, 농부, 목동, 바구니 짜기등으로 나뉘어서 일하며 원장 아래 지도를 받으면서 수도생활을 했다. *Ibid.*, p. 39.



키웠으나 바질은 은둔 독거 문제점을 인정하고 공동 수도원 제도로 발전시켜 공동체 수도 생활을 시도하였다. 그리고 수도원을 옮겨 다니는 것을 금하며 한번 서원 하면 평생 죽기까지 한 수도원을 떠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여 침묵, 독서, 기도, 청빈, 노동을 통해서 영성생활을 쌓았다.<sup>30)</sup>

동방 수도원 운동의 아버지는 바질(Basil, 330-379)이다. 바질은 영혼이 세례에서 시작하여 성장하고 결국 “하나님을 봄”(visio Dei)으로 완성되는 과정을 중심으로 수도원 신학을 정리하였다. 동방교회는 이러한 수도원의 신비 신학을 계속 발전시켰고 14세기에는 빛의 신비주의라고 하는 “헤시카즘”같은 신비주의 전통을 받아들였다. 동방교회는 교회론 중심적인 서방 교회와 달리 이렇게 성령이 계속 강조되었고, 신비적 영성이 지속적으로 추구되었다.<sup>31)</sup>

서방 수도원 운동의 위대한 개혁자는 누르샤의 베네딕트(Benedict, 480-550)였다. 그는 서방 수도원 운동의 개혁자로서 480년에 중부 이탈리아의 누르샤(Nursia)에서 출생하였다. 당시 로마 도시의 최악에 베네딕트는 로마 동편 수비아코(Subiaco)에 있는 산속 동굴에 들어가 은사가 된다. 그의 고결한 명성은 이내 널리 퍼져나갔고 그에게 수도원 원장직이 주어졌다. 그러나 그는 무질서하고 불순종하는 수도승들을 버리고 곧 그곳을 떠나 몬테 카시노(Monte Cassino)언덕에 베네딕트의 모 수도원(母修道院)을 설립하게 된다.<sup>32)</sup>

---

30) 엄세천, *op. cit.*, p. 28.

31) Bernard. McGinn, J. Meyendorff, Jean. Leclercq, *op. cit.*, pp. 173-178.

32) Williston. Wallker, 『세계기독교회사』 강근환, 민경배, 박대인, 이영현 역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1993), p. 115.

베네딕트 수도원의 삶의 대강령은 청빈, 순결, 순명이었다. 그들은 수도생활의 대원칙은 무소유한 삶을 살 것과 몸과 마음을 청결하게 유지할 것, 그리고 지도자의 가르침에 절대 순명할 것이었다. 그들은 수도원의 삶을 자급자족의 원칙 속에서 노동과 기

베네딕트 수도원 내의 삶에서 가장 정형화된 것은 기도였다. “하루 일곱 번씩 주를 찬양하나이다.”(시119:62,164)라는 시편 구절에 근거하여 매일 새벽부터 해가 질 때까지 일곱 번씩 정기적으로 기도했다. 수도원의 하루의 기도 자체가 그리스도와 관련되어 하나의 완성을 이룬 말씀 자체였고 일 년의 삶 자체가 완성을 이루는 기도의 삶 자체였다. 두 번째로 베네딕트 수도원 내에서의 철저한 복종(순종)을 강조했다. 이 복종은 하나님께 대한 복종이라기보다는 수도원의 규율이나 수도원장에 대한 복종을 의미했다. 수도원의 모든 규율은 수도원장을 중심으로 유지되었고, 수도원장에 대한 절대적인 복종이 요구되었다. 이러한 수도원장과 규율에의 복종은 수도원장이 영적인 측면과 모범적인 측면에서 대단히 탁월했을 때, 그리고 수도원의 전체적인 분위기가 하나님 앞에서 성경을 유지하고자 할 때라면 큰 문제가 되지 않았다. 그러나 점차 규율이 사람들을 얽어매고, 중세의 유일한 문명 집단이었던 수도원의 원장들이 점차 정치적이고 경제적인 일에 얽매어 들어가면서 많은 폐단을 낳게 되었다. 세 번째는 노동이 있었다. 베네딕트 수도원은 특별한 질병이 없는 사람들은 모두 순번제로 노동을 했다.<sup>33)</sup> 서방 수도원 운동은 노동을 중요시하기는 했지만, 노동을 통해 공동체성을 회복하거나 증진시킨다는 개념은 별로 발전시키지 않았다.

수도원 운동은 문제점도 많았지만, 당시 타락해가던 교회에 많은 영향을 주었고 교회로 하여금 참 신앙을 다시 생각하게 하는데 큰 도전을

---

도생활과 독서를 동등한 가치에 두는 전인적인 삶을 추구하였다. 이와 같은 이유로 베네딕트 수도원은 학문과 문화 창조와 영성생활의 중심지가 될 수 있었다. 부패한 교회를 개혁한 여러 명의 교황이 베네딕트 수도원에서 배출될 수 있었던 것이나 수도원의 정신이 퇴색될 때마다 베네딕트 수도원정신으로 돌아가자는 구호가 나온 것은 이 수도원의 영향력이 컸음을 나타낸다. 유해룡, “기독교영성의 뿌리”, 『교육교회』 (1993. 10), p. 57을 참고.

33) Justo L. Gonzalez, 『중세교회사』 서영일 역 (서울: 은성, 1993), pp. 25-30.

주었다. 그리고 교회의 이단들을 회개시켰으며, 성직자들을 각성 시켰으며 선교에 열심을 가져왔고, 교육과 성서번역 사업에 큰 역할을 하게 되었다. 이는 영성생활의 승리였다. 후에 그들의 영성생활은 중세 영성사로 자연스럽게 연결되면서 중대한 영향을 미쳤다.

14세기에 이르러 서방 수도원은 공동생활형제단 “근대 헌신 운동” 등 평신도 영성 운동을 발전시켰다. 여기서 나온 가장 유명한 책은 토마스 아 켐피스(Thomas a Kempis)의 『그리스도를 본받아』(The Imitation of Christ)였다.<sup>34)</sup>

16세기 후반 개혁파 갈멜회는 아주 탁월한 두 영성가, 아빌라의 테레사(Teresa of Avila, 1515-1582)<sup>35)</sup>와 십자가의 성 요한(St. John of the Cross, 1542-1591)을 배출하였다.<sup>36)</sup>

---

34) Jill. Rait, Bernard. McGinn, J. Meyendorff, 『기독교영성Ⅱ』 이후정, 엄성욱, 지인성 역 (서울: 은성, 1999), p. 267-268.

35) 테레사는 1515년 3월28일 아빌라의 기독교 가정에서 태어났으며, 9남2녀중 다섯째였다. 12살때에 어머니가 돌아가셨을 때에, 그녀는 일생을 성모 마리아에게 맡겼다. 그로부터 얼마 후, 그녀의 부친인 돈알론소 산체스 데 케페다는 그녀를 어거스틴회 수녀들이 가르치는 여학교에 보냈다. 이곳에서 테레사는 처음으로 종교적 소명을 향한 성향을 경험하기 시작했다. 얼마 후 삼촌집에서 지내면서 삼촌에게 영적 서적들을 읽어주었다. 이렇게 시작된 영적 독서는 유익한 효과를 거두었다. 테레사는 「성제롬의 서신집」을 읽고서 감명을 받고, 종교적인 생활에 대한 결정을 하고 갈멜 수녀원으로 들어가기로 결심했다. 테레사는 내면 생활, 하나님으로부터의 조명, 수동성 등을 영적 성장에 필요한 조건이라고 강조했다. 테레사는 평생동안 빈번하게 주님의 음성을 들었다. Louis. Dupre, Don E. Sailors, 『기독교영성Ⅲ』 엄성욱, 지인성 역 (서울: 은성, 2001), pp. 119-127 을 참고.

36) 십자가 요한은 1542년에 스페인의 폰티베로스에서 태어났다. 21세때에 메디나 델 캄포에 있는 갈멜수도원에 들어갔고, 사제가 되기 위해서 살라만카 대학에서 수학했다. 1567년에 테레사를 만난 후, 그는 테레사가 갈멜 수도사들 사회에 관상적인 방식의 생활을 도입하는데 합류했다. 십자가 요한의 저서들은(초판은 1618년에 인쇄되었다)저술되고 나서 4세기가 흐른 뒤에야 비로

## E. 종교개혁자들의 영성

사막의 영성에서 공동체 영성으로 이어지기까지 인간의 죄성과 인간 성화의 필연성,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에서 정리된 영성 개념은 이제 당대 교회 실존적 문제로 번져나가게 된다.

종교개혁의 영성의 핵심은 성경중심의 영성이라고 할 수 있다. 이것은 개신교가 성경해석과 설교중심의 예배 종교를 회복시키고 성경 속에 있는 무진장한 영적 보화와 진리의 샘터 속에 개신교 영성신학의 뿌리가 내리도록 한 위대한 전환이었다.

### 1. 루터

중세 후기 로마 카톨릭 교회가 혼돈에 빠졌을 때, 마틴 루터(Martin Luther, 1483-1546)는 영적 문제들을 시정하기 위해서 종교개혁을 주도하게 되었다. 그가 종교개혁을 일으킨 내적인 요인 중 가장 중요한 것은 그의 복음의 재발견에 있다. 로마서 1장17절에 기록된바 복음과 하나님의 의에 대한 바울의 말을 이해했을 때에 비로소 낙원의 문이 열렸다. 그는 처음으로 하나님의 의는 값없이 주어지는 선물이고, 인간이 노력하여 얻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다.<sup>37)</sup>

루터는 다른 개혁자들과는 달리 카톨릭의 유산을 버리려 하지 않고 그것을 개혁하기를 원했다. 그의 기준은 복음에 대한 그의 식견, 즉 사람들은 믿음을 통하여 은혜에 의해 의롭다함을 얻는다는 것이다. 그는 교

---

서 영성을 연구하는 많은 학자들과 학생들의 관심을 끌기 시작했다. 요한의 교리는 하나님을 찾고 있는 영혼, 하나님과의 합일을 향해 움직이는 영혼, 이 목표를 방해하는 것들과 싸우는 영혼을 묘사한다. *Ibid.*, pp. 127-132 참고.

37) Bradley P. Holt, *op. cit.*, p. 134.

부들과 신비가 들의 저서들을 의지하면서, 영적 전통을 판단하는 표준으로써 바울이 분명히 말한 복음을 사용했다. 38)

루터는 성서와 어거스틴 외에는 아무 것도 필요 없다고 했지만 또한 영적으로 유명론과 독일의 신비주의의 영향을 받았다. 루터가 신비주의적 전통을 존중했다는 것은 그가 약 100년 전의 익명의 작품인 『독일신학(Theologica Germanica)』을 출판한데서 찾아볼 수 있다. 그는 이 책이 평신도들에게 유익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두 번 인쇄했다. 그러나 그의 독특한 관점들은 1520년에 펴낸 『기독교인의 자유(The Freedom of a Christian)』에 등장한다. 이 논문에서는 영혼이 그리스도와 결혼한다는 신비적인 상징이 새로이 중요성을 취한다. 즉 그리스도의 의와 영혼의 죄를 교환한다는 것이다.<sup>39)</sup> 그것은 다음과 같은 역설적인 진술과 더불어 시작된다. 기독교인들은 만물에서 완전히 자유로운 주인이며 누구에게도 예속되지 않는다. 기독교인은 만물의 종으로서 만물에게 예속된다.

루터는 일생동안 영적 공격, 혹은 깊은 절망 때문에 분투했다. 이 깊은 절망은 하나님 앞에서의 그의 위치에 대한 도전으로서 죄책감이라는 깊은 심연과 사탄의 조롱에 빠지는 것을 의미했다. 그는 거룩함 안에서의 성장에 대한 주장들을 의심했으며, 그러한 성장을 목표로 삼지도 않았다.<sup>40)</sup>

루터는 단지 죄인으로서 십자가에 충실하게 머물러 있기만 원했다. 그는 여기서 벗어나는 운동은 모두 안전하지 못한 것으로 여겼다.<sup>41)</sup>

루터는 “십자가의 신학”(Theology of the Cross)과 “십자가의 영

---

38) *Ibid.*, p. 135.

39) *Ibid.*

40) *Ibid.*, p. 136.

41) *Ibid.*

성”(Spirituality of the Cross)을 요구했다. 그는 “영광의 신학”(Theology of Glory)에 반대했는데, 이 신학에서는 아리스토텔레스와 중세 시대의 신학자들이 행한 것과 마찬가지로 모든 것을 하나의 커다란 체계로 해석하기 위해서 인간의 상황을 초월하는 입장을 취했다. 그러나 루터가 주장하는 십자가 신학은 인간의 이성과 기대와 상관없이 진행되는 것으로서 십자가 위에서 그리스도께서 당하신 고난과 더불어 시작된다. 루터의 영성은 은혜로우신 하나님을 발견하면서 자신이 체험한 자유에 초점을 둔다.<sup>42)</sup>

## 2. 츠빙글리

츠빙글리(Huldrych Zwingli, 1484-1531)와 루터는 여러 측면에서 같은 입장을 가졌지만, 종교적 경험에 있어서는 크게 달랐다. 루터는 죄의식을 통해서 복음이해에 도달하고 하나님과 인간의 새로운 관계를 인식했지만, 츠빙글리는 진지한 성경연구로 인한 하나님의 주권을 인식한데서 비롯되었다. 영성에 대한 츠빙글리의 중심사상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이었다. 그는 “우리들의 종교의 근거는 하나님이 만물의 창조자라고 고백하는 것과 하나님만이 만물에 대한 권한을 가지고 만물을 자유롭게 주신다고 고백하는 것이다”라고 말하였는데 여기에서 츠빙글리가 종교개혁운동을 시작한 원동력을 찾아볼 수 있다.<sup>43)</sup>

1518년 12월 27일 츠빙글리는 취리히에 도착하여 거기에서 개혁을 주도하였다. 그가 개혁적인 삶을 주도하게 된 데에는 “기독교적 삶이란 성경에 제시되어 있는 하나님의 뜻에 순응하는 것”<sup>44)</sup>이라는 그의 성경관에 뿌리를 두고 있다.

---

42) *Ibid.*, p. 138.

43) 이형기, 『세계교회사Ⅱ』(서울: 한국장로교회출판사, 1994), p. 112.

44) *Ibid.*

그의 개혁을 살펴보면 먼저 루터가 교회력에 따른 설교를 한데 반해서 설교의 주제를 자유롭게 선택하였다. 이것이 개혁교회의 전통으로서 지금까지 내려오고 있다. 둘째로 교황청의 면죄부 판매인 베르나르딘 삼손이 도시에서 면죄부를 판매하지 못하도록 함과 동시에 도시 밖으로 추방시키는데 성공하였다. 세 번째로 1519년 8월 쾰리히에 페스트가 발생해서 많은 사람이 고생하게 되자 밤과 낮으로 쉬지 않고 환자를 돌봄으로써 자신도 전염되어 약 석 달 동안 몹시 앓았다. 이로 인해서 크게 인정받게 되었다. 넷째로 교황청에 파송하는 용병과 교황청이 주는 연금의 잘못을 파악하고서 본인에게 지급되던 연금을 스스로 포기하였다.<sup>45)</sup>

### 3. 칼빈

루터에 있어서의 성령의 역사는 성서에 기록된 객관적 계시성의 주관적 신앙화, 즉 성경을 통한 이신득의에 의한 신 인간에 있어서의 인격적 신뢰의 관계성립에 지나치게 치중한 나머지 그리스도인의 생활에 대한 언급에 있어서는 소홀하였다.

그러나 칼빈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그의 기독교 강요의 <성령론>안에서 중생과 함께 그리스도인의 생활을 다루고 있음을 볼 때 그는 의인으로서만 멈추지 않고 성화에로 지향하고 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순간부터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그리고 그리스도는 우리 안에 거하시므로 성령에 의하여 생활하게 된다. 그런데 이 성화의 길은 단시일 내에 순간적으로 이루어짐이 아니라 조금씩 점진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으로서 우리는 죽을 때 까지 지속적인 뉘우침과 참된 경건의 훈련을 멈추어서는 안 될 것을 말한다.

---

45) Sidney M. Houghton, 『기독교 교회사』 정중은 역 (서울: 나침판, 1998), p. 174.

칼빈의 영성은 우선 그의 신인식과 인간 인식에서부터 비롯된다. 칼빈은 하나님을 참되게 알려면 동시에 우리 자신의 실존적 모습을 알아야 한다고 하였다. 이 둘은 동시에 상관관계에 있다. 인간은 그 스스로가 처해있는 상태가 비참하다는 것을 깨닫게 될 때 비로소 주권자요 영원한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우러러 바라보게 된다. 인간은 본래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지만 죄와 타락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상실하였다. 우리는 그 형상을 그리스도에게서 발견하게 된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의 삶은 그리스도안에 나타난 하나님의 형상을 인식하고 회복하는 삶 즉 그리스도를 본 받는 생활을 영위하는 것이다.<sup>46)</sup>

또한 칼빈은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 그리스도처럼 십자가를 지고 가는 삶을 말한다. 그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온갖 괴로움을 참고 견디는 것이다. 그것은 또한 다가올 내세에 소망을 가져야 함을 뜻한다. 하나님은 그리스도인으로 하여금 내세에 대하여 생각하고 소망을 가지도록 때로는 환란을 주시기도 하신다.

칼빈은 중생에 있어서 의인과 함께 경건이 뒤따라야 함을 강조한다. 그 경건은 성령 안에서의 자기 부정의 경건이요, 그 자기 부정은 신비주의자들의 자기 탈피와는 다른 것으로서 신과 그리스도와 이웃에게 정위된 자기 부정인 것이다.<sup>47)</sup> 성령님은 우리의 몸을 하나님의 성전으로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의 몸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빛나야 함으로 죄의 오염을 사전에 방지하여야 한다. 그리하여 그리스도인의 삶은 성화되어가는 삶의 연속이 되어야 하며, 그 성화되어가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며 또한 그리스도인 스스로가 그에게 영광을 돌리는 삶이 되어야

---

46) 칼빈의 『기독교 강요』 제 I 권 제1장 참고.

47) Wilhelm. Niesel, 『칼빈의 신학』 이종성 역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1973), p. 141.



한다고 하였다. 이것이 칼빈의 사상에 있어서 영성의 핵심이다.

칼빈의 영성은 IV장에서 구체적으로 다루어질 것이다.

## F. 근대 영성

종교개혁운동 이후의 영성 운동은 시대적 변화와 인간의 다양한 가치추구의 발달과 더불어 다양하고 복잡하게 형성되면서 경건주의 운동이 일어나게 된다. 경건운동은 필립 야곱 스페너(Philip Jacob Spener, 1635-1705)에 의해서 창시되었다.<sup>48)</sup> 스페너의 영성은 그의 선임자들은 갖지 않았던 종말론적 견해를 혼합한 것이었다. 그는 교회내의 보다 훌륭한 상태의 가능성에 대해 낙관주의를 표현하고, 지상에서의 그리스도의 천년 왕국을 기대했다. 그의 저서 『경건한 소원』 (*Pia Desideria*)에서 그는 성직자들이 평신도들 위에 군림하여 독재를 행하는 것에 도전하고, 만인제사장설에 대한 루터의 가르침을 새롭게 인식할 것을 요구했다. 그는 “모든 영적 기능이 예외 없이 모든 신자들에게 개방되어 있다.”고 확신하고 평신도들이 서로 가르치고 위로하고 권면하고 교육할 권리와 의미를 강조했다.<sup>49)</sup> 그의 사상은 할레대학의 젊은 신학자와 학생들에게 영향을 주게 되었다.

## G. 현대 영성

개신교가 카톨릭으로부터 갈라져 나온 후, 양 교단의 영성은 다양

---

48) Louis. Dupre, Don E. Sailers, *op. cit.*, p. 322.

49) *Ibid.*, p. 324.

한 변화와 발전을 거듭하였다.

카톨릭은 그 역동성이 세계 선교로 표출되어, 제국주의의 물결을 타고 아프리카로, 남미로 그 영역을 넓혀나가 해방 신학이라는 독특한 형태의 영성을 형성하기에 이르렀다. 개신교는 종교개혁 이후 독일 경건주의와 영국의 복음주의 부흥 운동 및 미국의 대각성 운동의 영향으로 세계 선교 운동을 추진해 가는 과정에서 ‘복음주의’와 ‘에큐메니칼’이라는 상이한 두 형태의 영성이 형성되게 되었다.

일치를 추구하기 위한 에큐메니칼 영성은 교회 일치의 영성으로 뿐만 아닌 세계 일치의 영성으로, 그리고 피조물(자연)과의 일치의 영성으로 확대되었다. 이러한 세계 일치의 영성은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믿고 사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다른 교파를 향해서도 개방된 자세를 가지고 살 것을 요구하고 있다.<sup>50)</sup>

이와 때를 같이하여 제3세계가 부각되게 되었다. 제3세계 교회의 영성은 에큐메니칼 영성과 흐름을 같이 하면서 그것을 상황적으로 적응시키며 발전시킨 형태의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에큐메니칼 영성의 특징이 일치의 영성이었다면, 제3세계의 영성은 상황에 대한 ‘연대적 영성’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이다.<sup>51)</sup>

---

50) Donal. Dorr, 『영성과 정의』 황종렬 역 (왜관: 분도출판사, 1990), p. 16.

51) H. Gollwitzer, 『신학의 연대성』 박종화 역 (서울: 대한기독교출판사, 1983), ‘연대성 개념’ 참조.

## IV. 칼빈의 영성<sup>52)</sup>

### A. 칼빈의 생애

프랑스어로 장 칼뱅(Jean Calvin) 혹은 장 코뱅(Jean Cauvin)이라 불리는 요한 칼빈은 1509년 7월 10일 프랑스의 노용(Noyon)에서 태어났다. 칼빈의 아버지 제라르 코뱅(Gerard Cauvin)은 집념과 야망으로 장인(匠人)과 뱃사공에서 소시민 계층으로 상승했다. 제라르는 1481년 시의 등기 직원이 되었고, 후에 노용 주교청의 비서, 노용 참사회의 대리인이 되었으며, 1498년에는 시민의 신분을 얻었다.<sup>53)</sup> 칼빈의 어머니는 지방 귀족의 딸이었는데, 칼빈을 낳고 4-5년 후 죽었으며, 아버지는 곧 재혼했다. 그 후 그의 아버지는 칼빈을 이웃 귀족가문인 몽모르(Montmors)집안으로 보냈는데, 칼빈은 여기에서 그의 첫 교육을 받았다. 칼빈의 아버지는 그를 사제를 만들려고 했기 때문에, 당시 고등교육을 받을만한 정상적인 나이인 열두 살 무렵에 칼빈을 파리대학으로 유학을 보냈다.<sup>54)</sup>

---

52) 칼빈의 영성은 르네상스 인문주의에 의해서 대표되는 15세기 및 16세기 수사학적 전통에 그 기원을 두고 있다. 칼빈은 로렌조 발라(Lorenzo Valla)를 탁월한 학자로 인정했을 뿐만 아니라, 또한 예정의 교리를 주장하는 동지로 여겼다. 칼빈이 발간한 최초의 책은 세네카(Seneca)에 대한 주석으로서, 에라스무스를 능가하려는 의도로 쓰여진 것이었다. 그는 에라스무스의 성경적 학식에 대해 잘 알고 있었고, 또 루터와는 달리 이 위대한 북 유럽의 인문주의자에 대한 직접적인 비판을 피했다. Jill. Rait, Bernard. McGinn, J. Meyendorff, *op. cit.*, p. 460 참고.

53) 이양호, 『칼빈: 생애와 사상』 (서울: 한국신학연구소, 1997), p. 11.

54) William J. Bouwsma, 『칼빈』 이양호, 박종숙 역 (서울: 도서출판 나단, 1993), P. 30.

칼빈이 1523년 파리에 가서 처음 공부한 곳은 마르쉬 대학(Collège de la Marche)이고 여기서 코르디에(Mathurin Cordier)에게 라틴어를 배웠다. 1550년 「데살로니가전서 주석」을 코르디에에게 헌정했다. 마르쉬 대학에서 얼마간 있다가 몽테귀(Montaigu)대학으로 전학을 하게 되었으며, 몽테귀 대학은 정통주의의 요새들 중 하나로 간주된 곳이다. 에라스무스(Erasmus)는 자신의 모교인 몽테귀 대학을 이렇게 혹평했다. “침대는 너무 딱딱하고 음식은 너무 형편없고, 종교적 철학 연구는 너무 무거워 이 대학에 들어온 첫 해에는 장래성을 보인 많은 젊은이들이 죽지 않는다면 미치거나 맹인이 되거나 나병에 걸리곤 한다. 형벌은 매질하는 것이며 교수형 집행인의 손에서나 기대할 끔찍함으로 다스려진다. 그 대학의 학장은 우리 모두를 수도사로 만들기를 원했으며 우리에게 금식하는 것을 가르치기 위해 육류를 전혀 주지 않았다....” 몽테귀 대학은 이렇게 악명 높은 대학이긴 했지만, 16세기의 가장 저명한 인물들인 인문주의의 왕자 에라스무스, 종교개혁의 완성자 칼빈, 카톨릭 부흥 운동의 주도자 로올라를 배출한 대학이기도 하다.<sup>55)</sup>

칼빈의 아버지는 칼빈을 어려서부터 성직자로 키우려 했다. 그래서 열두 살 때 체발하고 성직록을 받게 했다. 그러나 칼빈이 파리대학교의 몽테귀 대학에 문학 석사를 마쳤을 때 칼빈의 아버지는 칼빈에게 법학을 하라고 명했다. 칼빈의 아버지가 아들의 진로를 바꾸게 한데는 여러 가지 복합적인 이유들이 있었을 것이다. 장래 수입에 관한 생각도 했을 것이며, 노용 참사회와의 불화 때문에 아들의 장래가 불확실하다는 생각도 했을 것이다.<sup>56)</sup>

칼빈은 아버지의 명에 따라 1528년-32년 오를레앙(Orleans)과 부

---

55) 이양호, *op. cit.*, p. 14.

56) *Ibid.*, p. 15.

르지(Bourges)대학교에 가서 법학 공부를 했다. 이것은 그의 생애에 있어서 중대한 의미를 가졌다. 만일 칼빈이 파리 대학교에서 신학 공부를 계속했다라면 이 보수적인 대학교의 교육에 의해 로마 카톨릭 교회의 한 성직자로 남았을 것이다. 그러나 그가 오를레앙에 와서 인문주의를 접함으로써 로마 카톨릭 교회를 비판하고 종교개혁 운동을 전개할 계기가 마련되었다.<sup>57)</sup> 1532년 파리에서 법학분야 학위인 리첸티아트(Lizentiat)를 취득했다. 칼빈의 후견인의 역할을 해왔던 아버지가 1531년 5월 26일 세상을 떠났다.

칼빈은 1532년 봄 『세네카의 관용론』 주석 출판과 1534년 사이에 ‘갑작스러운 회심’(subito conversio)을 경험했다. 1557년의 『시편주석』의 서설에서 이 같은 언급을 하는데, 그 자세한 상황은 밝히지 않고 ‘하나님의 감추어진 섭리’에 의해서, 그리고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함으로써 그렇게 되었다고 한다.<sup>58)</sup>

1533년 가을부터 칼빈은 종교개혁의 공개적 대변자가 되었다. 이전까지의 칼빈은 카톨릭 교회의 인문주의적 개혁주의자의 모습을 띠고 있었다. 그런 그가 언제부터 분명한 복음적 개신교 입장에 서게 되었는지 정확히 알지 못한다. 그는 훗날 자신의 개신교 으로의 전환을 “뜻밖의 회심”으로 표현하면서 사도 바울의 다메섹을 떠올린다. 곧 회심과 동시에 하나님의 특별한 소명의식을 갖게 되었다는 것이다. 파리에서 개신교의 사람들과 1532년 관계를 가졌다. 1534년 5월 4일 노용에서 칼빈은 지금까지 받았던 성직록을 더 이상 받지 않았다. 이때 칼빈은 카톨릭과의 결정적 단절이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다.<sup>59)</sup>

1533년 10월 1일 파리대학교의 신임총장이며, 칼빈의 친구인 니콜

---

57) *Ibid.*, p. 16.

58) 이형기, *op. cit.*, p. 120.

59) 이양호, *op. cit.*, p. 19

라스 콕(Nicolas Cop)이 취임연설을 했다. 그는 에라스무스와 루터의 말을 사용하여 개혁을 호소했다. 칼빈이 이 연설문에 최소한 참여하였거나 써주었다고 본다. 이 사건으로 칼빈은 파리를 떠나 피신해야 했다. 1534년 초 파리로 돌아온 칼빈은 그해 10월 17일-18일 플라카드 소동(Affaire des Placards)이 일어남을 계기로 같은 해 12월 조국 블란스를 떠나게 된다. 스트라스부르크(Strasbourg)를 거쳐 1535년 1월 스위스의 바젤(Basel)에 칼빈은 도착한다.<sup>60)</sup>

칼빈은 『기독교 강요』 그의 제네바의 교회 정치형태, 제네바 아카데미, 성경 주석들 및 그의 꾸준한 서신연락으로 사상을 형성시켰고, 프랑스, 네델란드, 스코틀랜드의 개신교의 이상과 영국 청교도의 이상을 형성하는 데에 크게 기여했다. 그의 영향력은 폴란드와 헝가리로 침투해 들어갔고, 칼빈이 죽기 전에 그의 사상은 독일의 남서부에도 뿌리를 내렸다. 1564년 5월 27일 칼빈은 세상을 떠났는데, 그는 분명히 ‘유일하게 국제적인 개혁자’였다는 지칭을 받을만하였다.<sup>61)</sup>

## B. 칼빈 영성의 본질

### 1. 기독교 강요 제1판

칼빈에게 있어서 영성의 근본적인 양상은 그가 프랑스의 왕 프랑시스 1세에게 신앙고백적인 헌사를 하며 시작했던 『기독교 강요』의 제1판(1536년)에 잘 나타나 있다. 제1판 『기독교 강요』는 하나의 작은 소책자로 그리스도인의 경건한 신앙생활을 위한 영적 안내서의 성격을 띠고 있다.<sup>62)</sup>

---

60) *Ibid.*

61) 이형기, *op. cit.*, p. 130.

라틴어적인 감각으로 ‘가르침’을 의미하는 강요라는 단어는 ‘안내서’라고 번역될 수도 있으며 또한 더 정확하게 한다면 요약, 또는 발행인의 의사에 따르면 이것은 기독교의 신앙 요소들을 가르칠 것을 공언한 책이다. 이 서문에서 중요한 말은 지고한 경건성이다. 이것은 『기독교 강요』의 목적을 말해 주며, 먼저 칼빈이 프랑시스 1세에게 한 편지의 말을 재확인해 준다.<sup>63)</sup> “나의 의도는 종교에 흥미를 느끼고 있는 사람들이 참된 경건을 훈련받게 할 기초적 원리를 제공하려는 것뿐이다.”<sup>64)</sup>

프랑시스 1세에게 썼던 편지 형태의 중요한 기록의 첫 구절은 『기독교 강요』의 목적을 규정한 편지 - 칼빈에게 가장 중요한 것을 설명하는 것으로 조심스럽게 선별, 간주되었다. 칼빈의 영성은 처음부터 “경건”과 “지식”이라는 용어으로써 표현되고 있다.<sup>65)</sup>

1536년 판 『기독교 강요』의 요약은 칼빈의 영성 주요 주제들을 다시 한번 고찰하게 한다. 하나님과 인간에 관한 지식, 하나님을 향한 인간의 존경과 영광을 돌려야 할 필요성, 인간 편에서의 믿음과 봉사와 복종의 요구, 그리스도안에 성육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전폭적 의존, 그리고 경건한 예배에서 표현되는 인간의 실천적 자세이다.<sup>66)</sup>

『기독교 강요』에서는 하나님의 영광의 개념이 모두 보존되어 있다. 제일 첫 문장에는 직접적으로 하나님 한 분만이 하나님이며 하나님 외의 모든 것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존재한다는 것을 강조하였다. 그리고 그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는 계속적으로 노력해야만 한다. 우리

62) Joseph. Richard, 『칼빈의 영성』 최정희 역 (서울: 기독교문화사, 1986), p. 133.

63) *Ibid.*, p. 134.

64) *Ibid.*

65) *Ibid.*

66) *Ibid.*, p. 136.

는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여야 하며 그것은 우리 기도의 계속적인 목적이 되어야 한다고 말한다. 하나님의 영광이 중요하다는 것은 우리의 봉사와 찬양에서 표현하는 하나님을 향한 인간의 예배의 기본적인 요구에 직접적으로 이어지기 때문이다.<sup>67)</sup>

경건은 칼빈에 있어서 하나님을 향한 인간의 바른 태도, 진정한 지식과 진정한 예배를 포함한, 예배의 진정한 태도를 가리키는 포괄적인 용어이다.<sup>68)</sup>

## 2. 칭의와 성화

칼빈은 그리스도인의 생활을 말함에 있어서 경건하고 의로운 삶, 즉 성화된 삶을 강조했다. 그래서 그는 루터가 강조한 칭의에다 성화를 첨부하였다. 칼빈에 따르면 칭의와 성화는 분리될 수 없이 연결되어 있다. 즉, 칭의는 하나님이 우리를 그의 자녀 곧 의인으로 인정해 주시고 받아주심이고, 성화는 성령에 의한 우리 안에서의 지속적인 변혁 작업이며, 우리를 거룩함으로 이끄는 점진적인 과정이다. 따라서 칭의와 성화는 믿음의 이중열매로서 그리스도인의 생활의 전 과정에 관련되며, 또한 효력을 갖는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의 삶은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와 믿음 안에서 이 칭의와 성화가 진행되는 영적 성장의 삶이 되어야 하는 것이다.<sup>69)</sup>

칼빈에 따르면, 성화는 그리스도와의 연합과 합일이 없이는 이루어질 수 없으며, 또한 그리스도와의 연합 없이는 하나님과의 연합도 불가능하다. 칼빈은 성화의 궁극적인 목적을 하나님과의 완전한 연합에 두었다. 그런데 완전한 성화인 하나님과의 연합을 위해서는 먼저 그리스도와의 연

---

67) *Ibid.*, p. 138.

68) *Ibid.*

69) 류기중, *op. cit.*, p. 162.



합이 선행되어야 한다.<sup>70)</sup>

칼빈은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접붙임’(grafted)이란 말로 설명하고 있는데, 이 접붙임은 자신의 본질에서 그리스도의 본질로 옮겨지는 실체적 연합으로 정의했다. 칼빈은 이러한 성도와 그리스도 사이의 실체적 연합을 신비한 결합(mystical union)이라고 말하고, 이 신비적 결합을 영적인 결혼의 의미로까지 설명하였다.<sup>71)</sup>

칼빈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하는 것은 성령의 활동으로 보았다. 그에 의하면 성령은 그리스도와 성도들 사이에 있는 친화력이요 결합력이다. 따라서 성령은 사람들을 그리스도에게로 접근시키고, 성화시키며, 하나로 결합시킨다. 뿐만 아니라 성령은 교회를 성화의 장으로 만들고, 구성원들에게 신령한 은사들을 나누어준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의 영적 생활에는 교회 생활이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다.<sup>72)</sup>

한편 칼빈에 의하면, 성화는 또한 우리 인간 안에 파괴된 하나님의 형상의 온전한 회복을 의미한다. 그에 따르면 하나님의 형상은 지식의 빛, 정직한 양심, 그리고 모든 부분의 건전함이다. 그리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가장 완전한 형상이다. 따라서 우리 안의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려면 먼저 그리스도와의 일치와 그의 인격의 모방이 있어야 한다. 그리스도의 모방과 일치가 이루어지면, 우리의 경건, 양심 및 지성은 하나님의 형상의 본래 모습인 순수한 상태로 회복된다. 그런데 그리스도의 모방과 그와의 연합은 진정한 자기 부정과 자기 포기 즉 자기죽음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왜냐하면 자기 부정은 겸허· 용서· 이웃사랑의 마음 곧 그리스도의 마

---

70) *Ibid.*, p. 163.

71) John. Calvin, 『기독교강요』 이종성 공역 (서울: 생명의 말씀사, 1994), 3. 1. 3.

72) 류기중, *op. cit.*, p. 163.

음을 갖게 하며, 하나님 앞에서 바른 태도를 갖게 하기 때문이다. 여기서 우리는 칼빈이 고대 교부들이 말하는 영적 성장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성화의 방법인 초탈과 자기 포기를 그리스도인의 성화의 조건으로 삼고 있으며, 또한 저들의 영적 성장의 최후 목표인 하나님과의 연합을 그리스도인의 영성적 삶의 목표, 즉 성화의 궁극적 목표로 삼고 있음을 볼 수 있다.<sup>73)</sup>

### 3. 경건의 개념

‘경건’은 칼빈 신학과 목회영성 이해를 위한 핵심적인 개념이다.<sup>74)</sup> 칼빈은 경건을 “하나님에 대한 경외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결합된 것”<sup>75)</sup>이라고 정의하였다. 칼빈의 신학을 한마디로 이야기하라고 한다면 ‘영성’ 혹은 ‘경건’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sup>76)</sup> 따라서 ‘경건’은 칼빈신학

---

73) *Ibid.*, p. 164.

74) “진정한 경건은 하나님의 심판을 의도적으로 회피하는 두려움을 뜻하지 않는다. 오히려 하나님의 심판은 회피할 수 없기 때문에 두려움의 대상이 되어 있는 것이다. 참된 경건이란 오히려 하나님을 아버지로 사랑하며 주로서 두려워하고 경외할 뿐만 아니라 그분의 의로움을 받아들이고 그분을 거역하는 것을 죽음보다도 더 무서워하는 신실한 감정이다. 이 같은 경건을 가진 자는 누구든지 자기 자신들을 위해서 성급하게 어떤 신(神)을 고안해내지 않는다. 오히려 그들은 그에게서 참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찾으려 그가 자신을 보여주고 선언하는 모습 그대로를 받아들인다.” John Calvin, 『칼빈의 경건』 이형기 역 (서울: 크리스찬다이제스트, 1998), p. 25을 참고하라. 크리스찬 다이제스트사에서 John Calvin 저, 『칼빈의 경건』이라고 되어 있으나 잘못된 표기이다. 실은 Ford Lewis Battles가 편역한 *The Piety of John Calvin*의 책을 이형기 교수가 “그리스도인의 경건한 삶”으로 번역하였다.

75) John Calvin, 『기독교강요』, 1. 2. 1.

76) 이양호, “칼빈의 영성” 『기독교의 영적 스승들』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1996), p. 220.

의 핵심적 개념이다.

칼빈은 그의 저서 『기독교 강요』의 80개장에서 어느 장도 경건을 다루기 위해서 특별히 할애하지는 않았지만, 사실 그 전체가 경건을 위하여 할애하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sup>77)</sup> 칼빈이 쓴 『기독교 강요』 제1판에 있는 프랑스 국왕 프랑시스 1세에게 바치는 헌사를 살펴보면 그의 경건에 대해 이해할 수 있다. ‘가장 훌륭한 신 폐하시여! 내가 이 책을 쓰기 시작할 때에는 후에 폐하게 드릴 수 있는 책을 쓰겠다는 생각까지는 미처 가지지 못하였습니다. 나의 의도는 다만 몇 가지 기초적인 원리를 기술하여 종교에 열심 있는 사람들이 참된 경건의 생활을 이루도록 하려는 것이었습니다.’<sup>78)</sup>

또한 『기독교 강요』의 중심 내용이 무엇인가를 나타내는 인용문을 살펴보아도 잘 알 수 있다. “본서는 기독교의 기본교리, 곧 경건한 삶의 총화와 구원론의 총화이다.”<sup>79)</sup>

이처럼 칼빈에게 있어서 경건은 그의 신학의 한 주제라기보다는 그의 신학 전체의 방향이며 목적이었다고 말할 수 있다.<sup>80)</sup>

칼빈의 경건의 개념을 살펴보기 위해서는 그가 경건 이라는 단어와 긴밀히 연관시키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 ‘하나님 경외’, ‘하나님께 복종’등을 이해해야 한다.<sup>81)</sup> 칼빈은 하나님께 대한 두려움이 경건의 열매와

---

77) 이수영, “갈뱅에 있어서의 경건의 개념” 『교회와 신학』 27집 (1995): p. 348.

78) John Calvin, 『Institutes of the Christian Religion』 Vol.1.Ed. by John T. McNeill, and trans. by F. L. Battles (Philadelphia: The Westminster Press, 1960), p. 9.

79) 이형기, 『종교개혁신학사상』 (서울: 장로회신학대학교출판부, 1984), p. 263.

80) 이수영, *op. cit.*, p. 263.

81) *Ibid.*, p. 350.

증거라고 했으며, 하나님께 대한 두려움과 경건은 경건의 의미와 그 구성 요소들을 열거할 때 종종 첫 머리에 등장한다.

칼빈이 말하는 경건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과,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음에서 오는 자발적인 사랑, 즉 하나님께 순종하며 봉사하는 것을 가리킨다. 이처럼 칼빈의 경건 개념은 철저히 하나님과 관계되어 있다.

## C. 칼빈의 제네바 목회

칼빈은 제네바에서 목회를 시작한 후 약 3년간 스트라스부르에서 목회한 것을 제외하면 제네바 교회의 목회자로서 평생을 살았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의 종으로서, 목회를 자신의 일생의 과제로 삼았고 오로지 교회를 위해 봉사했던 인물이다.<sup>82)</sup> 그리고 그의 목회생활 전반은 칭의에 대한 확신과 성화된 성도의 확증으로서 경건생활과 깊은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과 사랑으로 뭉쳐진 열정적 목회였다.

### 1. 1차 제네바 목회

『기독교 강요』 초판 이후 칼빈의 입장은 서서히 변했다. 1525년 이래 등장한 재세례파는 기성 교회를 부정하고 자신의 종파를 구성하였다. 재세례파 문제는 종교개혁자들에게 각성할 기회가 되었다. 재세례파와 같은 소종파의 운동은 가시적 교회의 필요성을 더욱 절감하게 만들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칼빈은 1536년 이후 제네바에서 종교개혁 사업에 동참하게 되었고 제네바 교회법을 만들었다. 칼빈은 종교개혁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가시적 교회가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즉 1536년

---

82) 한국칼빈학회 편, 『칼빈 신학과 목회』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1999), p. 253.

제네바 시는 프랑스 출신의 파렐에 의해서 주도되고 있었다. 파렐은 칼빈을 설득하여 그를 자신의 동역자로 종교개혁에 참여시켰다. 제네바의 종교개혁 사업에 동참한 칼빈은 로마 카톨릭 교회의 잔재를 일소하고 초대교회의 모습을 회복한다는 구호 아래 새로이 교회관을 정립하였고, 또한 초대교회 정치 체제를 귀감으로 삼아 시의 현실에 맞게 교회 정치 제도를 형성하였고, 올바른 교회 치리와 성례전 제도를 확립하였다.<sup>83)</sup>

제네바에서 칼빈의 첫 번 공식적인 활동은 1536년 11월10일 시의회에 ‘교회법’(Ordonnances ecclésiastiques)을 제출한 것이다. 이 문서는 제네바에서 교회의 질서를 바로잡고 종교개혁 사업을 진전하기 위한 대강령을 내포한다. 이에 따르면 첫째로 성만찬은 적어도 매주일 거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둘째로 성만찬에 사악하고 불의한 자들이 참여하여, 마치 주의 교회의 사악한 자들의 집단처럼 보임으로 주가 모욕을 당하지 않기 위하여 치리의 필요성을 강조한다. 셋째로, 회중이 시편의 찬송을 통해서 하나님께 감사 찬양할 것을 요청한다. 이 밖에 어린이에게는 교리문답 교육을 실시하여, 그들이 자신의 신앙에 대해 답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요구한다.<sup>84)</sup>

제네바 목회자들은 개혁을 위한 일련의 프로그램을 통해서 제네바에서 카톨릭 미사가 폐지된 이후 발생한 영적 공백을 신속히 메울 필요가 있었다. 목회자들은 신도의 신앙을 양육하고 그 실천 여부를 감독할 구체적인 틀, 제도가 필요했다.<sup>85)</sup>

칼빈은 양떼의 영적 성장을 위하여 양떼를 책임 맡은 교회에 대한 관심이 커졌다. 칼빈은 이제 가시적 교회와 성만찬, 치리, 시편 찬송, 신앙

---

83) *Ibid.*, p. 259.

84) *Ibid.*, pp. 260-261.

85) *Ibid.*

고백, 교리문답 교육 등 교회의 외형적 사건을 중요시하게 되었다.

이외에 신앙고백서와 교리문답서가 작성되었다. 모든 시민은 신앙고백서에 서명할 것을 요청 받았다. 그러나 일부 시민이 서명을 거부하였을 때 난관에 봉착했다. 시의회도 교회가 시민의 생활을 구속하려는 것, 이로써 교회에 시 정부에 대해 독자적 지위를 부여하는 것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 결국 이러한 이유 때문에 칼빈의 첫 번 목회 실험은 실패로 끝났지만 그것은 그의 후일 목회에 큰 교훈을 주게 되었다.

## 2. 2차 제네바 목회

칼빈과 파렐의 추종자들이 시의회에서 다수를 차지하게 되었을 때 제네바 교회는 칼빈에게 귀환을 요청했다. 오랜 숙고 끝에 그는 제네바로의 귀환을 수락하였다. 그 이유는 그가 스트라스부르에 3년간 체류하는 동안에 숙고한 교회의 이상을 실천할 수 있는 기회가 왔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었다. 1541년 9월 그는 시의회에 새로운 교회규범초안을 제출하였고, 그것의 결의 및 도입을 가능한 한 속히 할 것을 요구하였다. 이 문서의 핵심은 목사, 박사, 장로, 집사의 4직무에 있다. 내용은 다음과 같다.

목사는 설교와 성례전 집전 및 장로와 더불어 치리를 집행할 의무가 있다. 박사는 청소년 교육, 신학 훈련에 대한 책임을 진다. 장로는 교회원의 윤리적 삶을 감독할 책임이 있다. 장로는 목사와 함께 치리를 집행한다. 장로들은 중요한 세 시 행정기구의 회원이었고 목사는 그들을 임명할 때 표결권이 없었기 때문에 장로들은 시 정부의 전권 대표로서 교회 안에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었다. 집사는 병자와 빈자를 돌볼 책임이 있고, 그 목적을 위한 재정을 관리한다. 이 밖에 교회규범은 성례전 절차, 혼인식, 병자 죄수 방문, 유아 교리문답을 포함한다.<sup>86)</sup>

교회 안에서 칼빈은 가르침과 설교에서 가능한 한 일치성을 유지하도록 노력했다. 이를 위해서 일주일 1회 시와 인근의 목사들은 모임에 참석할 의무가 있었다. 순서에 따라서 모든 참석자는 각자 성서 구절을 해석해야 하고 그 해석을 참석자의 판단에 맡겨야 한다. 교회의 일치에 대한 그의 열망은 한편으로는 이 일치를 위해서 올바르지 않은 견해를 부단히 비판하는 일과 다른 한편으로는 이견에 대한 관용 및 합의 추구라는 패러독스를 불러일으켰다.<sup>87)</sup>

1541년도 제네바 교회규범은 그의 『기독교 강요』에서 전개하고 있는 교회론을 실천적 관점에서 옮겨 놓은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교회와 목회에 대한 적극적 자세는 칼빈의 『기독교 강요』에 그대로 반영되었다.

칼빈은 교회를 어머니에 비유하고 있다.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를 양육하는 것은 바로 어머니인 교회인 것이다. 그 어떤 인간도 어머니의 양육 없이, 품을 떠나서 성장할 수 없듯이 인간은 교회를 떠나서는 믿음이 자라날 수 없다. 당시 교회에 염증을 느낀 일부 열광주의자가 기성 교회를 배격하고 개인적 성령 체험을 역설한 것에 대항하여 칼빈은 이처럼 교회의 인도를 신앙을 위한 필수적인 수단으로 강조하고 있다.<sup>88)</sup>

칼빈은 교회관을 논하는 가운데 두 개의 적수를 염두에 두고 있었다. 즉 재세례파와 로마 카톨릭 교회이다. 칼빈은 로마 카톨릭 교회가 교황청의 지시에 따라 모든 것이 획일적으로 이루어지고 교황의 뜻에 어긋나는 경우에 이단자로 몰아서 징계하는 방식이 결코 참된 의미의 카톨릭이라고 할 수 없다고 보았다. 칼빈은 교회를 하나님이 우리 인간의 양육을 위해 제공한 어머니와 같은 지상적 수단, 그리스도의 품이 하나이듯이 하

---

86) *Ibid.*, p. 262.

87) *Ibid.*, p. 263.

88) *Ibid.*, p. 264.

나인 교회, 그 안에서 성도들이 교제를 나누는 그리스도의 몸, 선택된 백성의 모임으로서 그 본질을 규정하고 있다.<sup>89)</sup>

칼빈은 가시적 교회의 외적인 표지를 전면 부정하지는 않았다. 그것은 즉 말씀과 성례전이다. 즉 하나님의 말씀이 올바르게 선포되고 올바른 성례전이 집행되는 곳에 교회가 있다고 보았다. 여기서 말씀은 성서의 메시지를 의미하고, 성례전은 성서가 가르치는 두 가지 성례전, 즉 세례와 성만찬을 의미한다. 칼빈은 로마 카톨릭 교회가 가르친 7성례전 중에서 세례와 성만찬을 제외한 다른 5가지 성례전은 거짓 성례전으로 배격한다.<sup>90)</sup>

칼빈은 교회 생활의 형식적이고 일반적인 모습에 대해 많은 동시대 사람들보다 더욱 관심을 가졌다. 그는 우리가 교회의 형식적인 면에 대해 무관심한 것은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구속의 전체와 생활 전반에 대한 그의 주되심을 거부하는 것이라고 생각했다.<sup>91)</sup>

칼빈의 제네바 교회의 목회는 서양문화에 큰 영향력을 끼쳤다. 칼빈은 하나님 중심적인 순수한 목회자로서 그 시대의 정치논리, 경제 논리, 시대의 논리를 뛰어넘는 사상을 피력했으며, 이것이 그의 영구적 영향력이 되었다.

---

89) *Ibid.*, p. 266.

90) *Ibid.*, p. 268.

91) Ronald S. Wallace, 『칼빈의 사회 개혁 사상』 박성민 역 (서울: 기독교문서선교회, 1995), p. 187.



## D. 그리스도인의 삶<sup>92)</sup>

칼빈은 목회영성을 바탕으로 성도의 생활과 실천적 삶의 실재를 정의하면서 목회자와 성도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야 하는 구체적인 대안을 잘 정리하여 주기도 했다. 그것은 곧 ‘그리스도인의 삶’이다.

### 1. 자기부인(Self-Denial)

그리스도인의 삶의 요점(sum)으로서 칼빈은 자기부인을 제시한다. 그 근거는 우리가 우리 자신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라는 데 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의 것이 아니므로 우리의 이성이나 의지가 지배하지 못하게 해야 하며, 우리의 유익을 구해서도 안 되고, 할 수 있는 대로 우리 자신과 우리의 전 소유를 잊어버려야 한다.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므로 하나님을 위해 살고 죽어야 한다.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만 생각하고 말하고 묵상하고 행동할 수 있어야 한다.”<sup>93)</sup>

자기부인은 두 가지 관계에서 우리를 올바르게 만든다. 먼저는 이웃에 대한 태도로서 곧 이웃사랑으로 나타난다.<sup>94)</sup> 칼빈에 의하면 이웃사랑의 근거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모든 사람을 사랑해야 하는 이유는 그들 자체에 사랑할 가치가 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이 모든 사람 안에 있으므로 그 형상에 대해 경의와 사랑을 표하는 것이라고 하였다.<sup>95)</sup>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자기부인은 헌신으로 나타난다. 이것은 우리

---

92) 최태영, “칼빈의 신학과 영성.” 2003년 2학기 영남신학대학교 신학대학원 강의안.

93) John. Calvin, 『기독교강요』 3. 7. 1.

94) John. Calvin, 『칼빈의 경건』 *op. cit.*, p. 86.

95) John. Calvin, 『기독교강요』 3. 7. 6.

의 모든 것을 주의 뜻에 맡기고 주님께 복종하는 것이다.<sup>96)</sup> 주님께서 주시는 것 외에는 아무 것도 원하지 말아야 한다. 자기부인은 또 하나님 앞에서 겸손과 인내로 나타난다. 하나님이 복을 주시면 즐거워하고 아직 복이 미치지 않으면 그것도 하나님께 맡기고 평온한 가운데 겸손히 인내하는 것이다.<sup>97)</sup>

## 2. 십자가를 짊(Bearing the Cross)

칼빈은 그리스도의 제자는 자기부인의 일부로서 자기 십자가를 져야 한다고 가르친다. 주님께서 양자로 받아들인 자들은 고난의 삶을 영위해갈 만반의 준비를 해야 한다. 거룩하신 아버지의 뜻은 고난 속에서 자신의 종들을 훈련시키는 것이다. 이 같은 삶의 방법은 하나님의 첫 아들이신 그리스도 안에서 시작된다.<sup>98)</sup> 칼빈은 우리들로 하여금 고난을 통하여 하늘의 영광을 입으신 그리스도를 보라고 한다. “그리스도는 친히 인내의 본을 보이시려고 우리를 위해서 그 상황을 달게 받으셨는데, 왜 우리는 우리 머리이신 그리스도께서 처하셔야만 했던 그 상황을 면하려고 하는가?”<sup>99)</sup>

십자가가 필요한 이유는 교만과 자랑을 꺾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게 하기 위함이다.<sup>100)</sup> 자신에 대한 맹목적 사랑을 없애고, 자기의 무능을 깨닫게 하고, 그리하여 자기를 믿지 않고 그 대신 하나님을 믿으며, 하나님의 도움을 의지하면서 인내하도록 하기 위함이다.<sup>101)</sup> 십자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인내심을 시험하며 순종을 가르친다. 결국 십

96) John. Calvin, 『기독교강요』 3. 7. 8.

97) John. Calvin, 『기독교강요』 3. 7. 9.

98) John. Calvin, 『칼빈의 경건』 *op. cit.*, p. 98.

99) John. Calvin, 『기독교강요』 3. 8. 1.

100) John. Calvin, 『기독교강요』 3. 8. 2.

101) John. Calvin, 『기독교강요』 3. 8. 3.

자가는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운 방편이 된다.

칼빈은 십자가를 참고 견디는 것을 완전한 마비상태가 된다는지, 아무 고통도 느끼지 않는 것은 아니라고 하였다. 스토아 철학자들이 위대한 영혼을 가진 사람들은 역경이나 순경이나 슬픈 때나 기쁜 때나 꼭 같은 느낌, 돌과 같이 아무 느낌이 없다고 한 것을, 칼빈은 우매하고 냉혹한 철학이라고 비판하였다. 주님께서는 자신의 불행과 다른 사람들의 불행에 대해서 깊이 슬퍼하시며 눈물을 흘리셨음을 상기시켰다.<sup>102)</sup> 경건이 무감정 무감각을 의미하는 것은 전연 아니라는 것이다. 고난과 불행 앞에서 두려워하며 슬퍼하는 것은 자연적인 것으로서 전혀 잘못이 아니다. 다만 경건은 이러한 감정과 싸워서 마침내 하나님의 뜻을 따르게 하는 것이다.<sup>103)</sup> 즉 무감정, 무표정 이런 것들이 경건의 표징이 아님을 말하는 것이다.

또 고난을 참고 견디는 것은 필연성 때문이라는 견해에는 동의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필연성이라는 것만이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는 이유라면 도피할 수 있는 때에는 순종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에 의하면 고난은 우리의 유익을 위한 것이다. 그러므로 감사와 평온한 마음으로 고난을 당해야 하며, 마음이 아프더라도 동시에 영적인 기쁨과 감사함이 넘칠 수 있다.<sup>104)</sup> 마지못해 받는 고난이 아니라, 피할 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우리의 유익이라는 확신 하에 동의하는 고난이 경건이라는 것이다. 결국 우리는 기쁨, 감사, 그리고 평안 가운데서 십자가를 지는 삶을 살아야 함을 가르친다.

---

102) John. Calvin, 『기독교강요』 3. 8. 9.

103) John. Calvin, 『기독교강요』 3. 8. 10.

104) John. Calvin, 『기독교강요』 3. 8. 11.

### 3. 내세에 대한 묵상(Meditation on the Future Life)

칼빈은 십자가를 지는 것 곧 고난이 내세에 대한 묵상으로 이끈다고 본다. 하나님은 우리가 세상에 대한 지나친 사랑을 가지지 못하도록 고난을 보내주신다. 그러므로 고난이 닥치면 그것의 목적은 현세를 무시하고 내세를 묵상하기 위한 것임을 생각해야 한다.<sup>105)</sup>

칼빈에 의하면 경건은 내세에 대한 묵상을 요청한다. 우리가 이 세상에 너무 강한 애착심을 가지고 있는 한 내세를 묵상하지 못하고 경건에 나아가지 못하게 된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의 경건을 위하여 세상의 것들을 우리에게서 없어지게 함으로서 세상의 선이라는 것이 얼마나 무상한 것임을 보고 세상을 경멸하게 만드신다. 십자가를 통해 이 세상의 삶에서 우리가 추구하고 바랄 것은 아무 것도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우리가 얻을 면류관을 생각할 때, 우리는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보아야 한다. 먼저 현세를 경멸하지 않으면 우리의 마음은 내세를 참으로 깊이 열망하지 못하게 된다는 것을 믿어야 한다.”<sup>106)</sup>

칼빈은 우리가 세상을 과도히 사랑하든지 아니면 세상을 경멸하든지 양자택일을 하게 되므로 중간지대는 없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대개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영원히 살 것인 양 모든 일을 한다. 죽을 운명조차도 우리에게서 아무 상관도 없는 듯이 지상에서 영생을 누릴 것이라고 확신한다. 지상 생활에 최고의 선이 내포되어 있는 듯이 인생에 대한 경탄을 금하지 못한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여 “이 세상을 무시하고 전심전력하여 내세의 삶을 묵상해야 한다.”<sup>107)</sup>

그러나 현세에 대한 경멸은 현세에 대한 증오나 하나님께 대한 감

---

105) John. Calvin, 『기독교강요』 3. 9. 1.

106) John. Calvin, 『기독교강요』 3. 9. 1.

107) John. Calvin, 『기독교강요』 3. 9. 2.

사치 앎음과는 다르다는 것을 칼빈은 강조한다. 현세적 삶은 무시되어서는 안될 하나님의 복으로 여겨져야 한다고 말한다.<sup>108)</sup> 그에 의하면 현세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다. 따라서 현세를 배척하는 것은 하나님께 감사하지 못하는 죄가 된다. 현세를 경멸하는 이유는 그 자체가 악하기 때문이 아니라 그것이 덧없는 것이기 때문이다. 덧없는 것에 마음을 빼앗기면 참으로 영원한 것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칼빈은 덧없는 현세를 경멸하라고 한 것이다. 현세의 경멸은 내세에 대한 묵상과 결합되어 있다. 목적은 내세에 있다. “하늘의 삶에 비하면 지상의 삶은 당장에 무시하고 짓밟아버려도 무방하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를 죄의 종노릇하게 하지 않는 한 증오해서는 안 된다.”<sup>109)</sup>

내세에 대한 묵상은 죽음에 대한 공포를 배격한다. 경건은 죽음에 대한 열망을 낳는다고 칼빈은 이해한다. 그에 의하면 그리스도인임을 자랑하는 많은 사람들이 죽음을 원하기는 고사하고, 죽음에 대한 공포심에 사로잡혀 벌벌 떠는 것은 이상한 현상이다.<sup>110)</sup> 그리스도인의 삶은 죽음 뒤의 완성을 향해 나아가는 삶이고, 그런 의미에서 이 세상의 삶은 순례자의 삶이다. 죽음을 통해서 순례를 마치고 하늘나라고 돌아가게 된다. 그러므로 그는 “일어나 머리를 들라”(눅 21:28)는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머리를 높이 들어 모든 지상적인 것들을 초월하게 되기를 원한다.

#### 4. 현세의 선용(Enjoying the Present Life)

칼빈은 현세의 선한 것들을 인정하고 그것을 하나님의 선물로서 즐길 것을 제의한다. 현세의 삶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있어서는 하늘나라를

---

108) John. Calvin, 『기독교강요』 3. 9. 3.

109) John. Calvin, 『기독교강요』 3. 9. 4.

110) John. Calvin, 『기독교강요』 3. 9. 5.

향하여 서둘러 행하는 하나의 순례이다. 그 순례를 방해하지 않고 오히려 도움이 된다면, 현세의 선한 것들을 선용해야 한다고 가르친다. 그러나 여기에는 제약이 필요한데, 그렇지 않으면 극단적인 방종이 야기되기 때문이다.

피조물을 사용하는데 있어서 각자의 양심에 맡기자는 자유방임적인 주장과 반드시 필요한 것만 허용하자는 엄격한 주장을 다 비판한 칼빈은 성경의 표준을 제시한다. 그 중심원리는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이 우리의 유익에 있다는 것이다.<sup>111)</sup> 필수 불가결한 것이 아니더라도 유익한 것이 있다. 그러므로 피조물의 사용을 필요에만 제한하는 것은 몰인정한 철학이라 하였다. 그것은 하나님의 자비로우심을 빼앗고 우리를 무감각한 목적으로 만드는 생각이다.<sup>112)</sup>

세상에 있는 선한 것들을 너무 부정해도 위험하고 너무 방임해도 위험하다. 할 수 있는 한 우리는 육의 정욕을 억제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그러나 가장 확실한 것은 현세의 삶을 멸시하고 하늘의 불멸을 목상하는 것이다. 칼빈은 즐거움을 주는 세상의 것들이 사람의 정신을 고결함과 순결에서 떠나게 하거나 그 마음을 흐리게 하는 것을 전적으로 배격하였다.<sup>113)</sup>

그리스도인은 세상에 대해 양면적인 태도를 가져야 한다. 하나는 세상에 대한 경멸로서 이것의 목적은 세상에 대한 헛된 사랑으로부터 해방을 얻기 위함이다. 내세를 동경함으로서 세상을 경멸하게 된다. 그러나 이것은 어디까지나 상대적인 경멸이다. 승천하신 주님을 위해서 세상을 사랑하지 않는 것이다.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 자기를 부인하는 것과 같다.

---

111) John. Calvin, 『기독교강요』 3. 10. 2

112) John. Calvin, 『기독교강요』 3. 10. 3.

113) John. Calvin, 『기독교강요』 3. 10. 5.

또 하나는 세상을 정당한 방법으로 사용하고 누려야 한다는 것이다. 세상이 주는 것을 인정하고 감사함으로 받아들여야 한다. 세상에 있는 것은 우리를 유익하게 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은사들이므로 그 목적대로 은사들을 사용한다면 잘못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 칼빈의 입장이다.

## 5. 오직 하나님께 영광(Soli Deo Gloria)

내세를 목상하면서 현세의 삶을 경멸하는 순례자의 삶을 살면서, 동시에 순례를 위해서 도움이 될 경우 현세적인 것을 선용하는 것이 경건의 삶이라고 말하는 것만으로는 아직 충분하지 않다. 세상에 대한 훨씬 적극적인 태도가 칼빈의 영성에 들어있기 때문이다. 칼빈에게는 역사의 궁극적인 목적이 인간의 구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에 있다. 모든 것은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존재한다. 모든 피조물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일해야 한다. “가장 위대한 일은 이것이다.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을 제외하고는 아무 것도 생각하고, 말하고, 목상하고, 행하지 않도록 하나님께 성별 되고 헌신되어졌다는 것이다.”<sup>114)</sup>

그리스도인은 평생 동안 하나님과 대화를 나누면서 생활하도록 훈련되어 있어야 한다. 칼빈은 자신의 모든 활동에 관하여 하나님께 보고해야 함을 알고 있다. 또한 칼빈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모든 의도를 지배하시도록 해야 하며 그 의도가 하나님에게 고정되도록 해야 한다고 말한다.<sup>115)</sup>

우리가 신앙을 고백하는 최종적인 목적은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과, 그로써 다른 사람들도 우리의 행실을 보고 같은 노력을 기울일 마음을 일으키는 것”<sup>116)</sup>이라고 칼빈은 말했다. 그러므로 세상에 있

---

114) John. Calvin, 『기독교강요』 3. 7. 1.

115) John. Calvin, 『칼빈의 경건』 *op. cit.*, p. 85.

116) John. Calvin, 『기독교강요』 4. 15. 13.

는 모든 것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 존재하는 것임을 알고 실천하는 곳에 칼빈의 경건이 위치한다.

그리스도인의 영성 생활은 시작에서부터 정해져 있는 종착점에 이르기까지 격렬하고 분투적인 순간들을 거치는 동안 봉사, 투쟁, 역경, 순례 등을 통해서 극적인 통일성을 획득한다. 적극적인 영성생활이란 인간 실존의 목적들을 실현하는 과정을 의미한다. 그것은 하나님과의 친밀하고 신뢰 깊은 관계(믿음)를 점점 발전시키는데, 이 관계는 보다 자발적이고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성화), 그리고 전심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그분의 행하신 일을 감사하는 데서 표현한다.<sup>117)</sup>

## V. 현대목회 실천을 위한 칼빈의 영성 적용

### A. 현대목회자들이 본받아야 할 칼빈의 영성목회

칼빈에게 목회자의 직임은 공적으로나 사적으로 가르치고 훈계하며, 권면 하고 책망하기 위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과, 성례를 집행하는 것, 그리고 장로들 및 동역자들과 함께 형제로서의 교정을 하는 것이다. 칼빈은 또한 교회 안에서의 질서를 위해서 ‘직책을 위한 부름’에 대한 분명한 이해를 확립하였다. 그것은 하나님으로부터의 부름인 내적 부름과 교회가 목회자로 부르는 외적 부름이 있다고 그는 보았다. 내적 부름은 목회자 자신이 의식하는 것으로, 이 부름 없이 성직자가 되어서는 안된다. 외적 부름에는 두 가지 조건이 있는데, 건전한 교회와 거룩한 삶을 구비했는가 하는 것이다.<sup>118)</sup>

---

117) Jill. Rait, Bernard. McGinn, J. Meyendorff, *op. cit.*, p. 481.



## 1. 말씀이 살아있는 목회

목회자의 임무 가운데 첫째가는 것은 말씀을 잘 가르치는 것이다. “가르치는 직임을 수행하지 않는다면 그는 교회의 참된 목회자가 아니다”. 그리스도는 “그들의 입이 자기의 입으로 간주되고 그들의 입술이 자기의 입술로 간주되기를 원한다.” 칼빈은 하나님께서 목회자를 대언자로 세우는 이유를 이렇게 열거했다. 첫째로, 우리 인간들을 하나님의 사신으로 사용한 것은 우리를 존중한다고 선포하신 것이다. 둘째로, 우리 인간들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은 듣는 자들을 시험하기 위한 것이다. 하나님이 하늘로부터 직접 말씀한다면 지체 없이 받아들일 것이다. “그러나 흠으로부터 나온 보잘것없는 인간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말할 때, 그가 아무 것도 우리보다 낫지 않을지라도 우리가 그의 사역에 순종을 보인다면, 하나님 자신에 대한 우리의 경건과 순종을 가장 잘 입증하는 것이다.” 셋째로, 우리가 가르치고 배우는 유대 속에 있을 때 상호 사랑을 키울 수가 있다는 것이다.<sup>119)</sup>

그리스도는 설교자의 입이 곧 자기의 입으로 간주되기를 원하지만, 그러나 설교자는 결코 자만해서는 안 되며, 하나님의 성령의 도움을 기다려야 한다. “성령의 역사가 하나님의 말씀에 결부된다. 그러나 구별된다. 이는 외적 말씀이 성령의 힘에 의해 생명이 불어넣어지지 않으며 그 자체로는 무용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도록 하기 위함이다.” 설교에서 성령의 역사가 결정적이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설교자가 아무것도 안 해도 된다는 것은 아니다. “만약 무엇보다 먼저 학자가 되지 않는다면 아무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좋은 사역자가 결코 되지 못할 것이다.” 예언이란 성서에 대한 단순한 해석이 아니라 현재에 적용할 수 있는 지식을 포함하

---

118) 이양호, “칼빈의 영성” *op. cit.*, p. 237.

119) *Ibid.*, p. 238.

는 것이다. 그래서 “선하고 신실한 목자의 직임은 단순히 성서를 설명하는 것에 한정되지 않는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에 힘과 능력을 더하기 위해 진지함과 예리함을 가져야 한다.”<sup>120)</sup>

목회자의 설교는 두 가지 효력을 가진다. 즉 믿는 자에게는 구원을, 악인에게는 정죄의 효과가 있다. 원래 복음은 구원하는 힘을 가지고 있으며 파괴적인 것이 아니다. 그러나 인간이 죄악 속에서 복음을 거부할 때 그를 정죄한다. 그러므로 목회자는 두 음성을 가져야 하는데, 하나는 양떼를 모으는 음성이고 다른 하나는 늑대나 도적들을 몰아내는 음성이다.

칼빈은 당시 재세례파가 기존 교회 안에 악한 자들이 많이 있다고 비판한 것을 인정하면서, 목회자는 권징 하는 일을 게을리해서는 안 된다고 했다. “사실상 교회의 질서가 잘 잡혀 있다면 그 품안에 사악한 자들을 품고 있지 않을 것이다.”<sup>121)</sup>

## 2. 삶에 관심을 가진 목회

칼빈은 목회자의 삶에도 깊은 관심을 가졌다. 목회자의 삶은 사랑을 가르치고 실천하는 삶이며, 그래서 가난한 삶이 되어야 한다. “감독은 가난한 자들이 가지지 않은 것은 아무것도 가지지 않는” 것을 바람직하게 보았다. “교회법은 교회의 수입을 네 부분으로 나누었는데, 하나는 교직자를 위해, 하나는 가난한 자를 위해, 하나는 교회 및 다른 건물들의 보수를 위해, 하나는 가난한 나그네나 가난한 본토민을 위해서였다.” 그래서 칼빈은 교회 수입에서 “적어도 절반”은 가난한 자의 몫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칼빈은 고대 교회의 아카키우스 감독이 “우리 하나님은 먹지도 마시지도 않기 때문에 잔이나 컵이 필요 없습니다” 하고 말하고, 교회의 그릇

---

120) *Ibid.*, p. 239.

121) *Ibid.*

들을 녹여 팔아서 굶주린 사람들에게 양식을 사 준 것을 높이 평가 하고 있으며, “교회가 가진 것은 무엇이나 곤궁한 자들을 도와주기 위한 것”이라는 암브로시우스의 말을 매우 진실 된 말이라고 애찬 했다.<sup>122)</sup>

### 3. 교회의 일치를 위한 목회

칼빈은, 목회자는 교회의 일치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보았다. 그래서 칼빈은 당시 재세례파 지도자들의 분파적 경향을 비판했다. “하나님의 양떼로부터 제외되는 것보다 더 무서운 것은 없다. 우리가 신자들과 일치하지 않으면 우리는 그리스도로부터 단절된 것이다.” 칼빈은 당시 분열되어 있던 개신교회의 연합을 위해 노력했으며, 영국 교회 대주교인 크랜머에게 보낸 편지에서 교회의 일치를 논하는 자리라면 “그것은 내게 대단히 중요하므로 내가 조금이라도 도움이 된다면, 그 일을 위해서 필요하다면, 열 개의 바다라도 건너가기를 싫어하지 않을 것입니다.”하고 말했다.<sup>123)</sup>

### 4. 영성 목회

칼빈의 영성 생활은 단순히 기도하고 성서를 연구하고 교회에서 설교하는 교회 내의 영성 생활을 훨씬 뛰어넘는다. 성서 밖의 자연과 역사에서 하나님의 계시를 발견하고, 문화에서 성령의 영감을 찾았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한다면 세상의 모든 생활이 영성에 관련될 수 있었다. 세상의 모든 일이 영성의 형성에 기여할 수 있으며, 또한 그리스도인은 무슨 일이나 경건적 혹은 영성적이어야 한다.

---

122) *Ibid.*, p. 240..

123) *Ibid.*

## B. 현대 목회실천을 위한 칼빈의 영성 훈련

### 1. 설교론에 나타난 칼빈의 영성

칼빈은 그의 영성의 원천이요, 출발점은 바로 하나님 말씀에 대한 지식이었다. 그는 ‘지식은 생명의 기초이며, 경건의 첫 입구이다. 영적인 은사의 그 어떤 것도 우리가 복음의 가르침에 의해 하나님에 대한 지식으로 비추임을 받기까지는 구원을 위해 아무런 소용이 없다’(벧후 1:3)라고 말한다. 또 「기독교 강요」 제1부 4장 1절에서 ‘게다가 어떤 사람은 미신에 사로잡혀 있고, 어떤 사람은 자신의 악한 생각으로 하나님을 배반하고 있지만, 어쨌든 이 사람들은 모두 다 하나님에 관한 참된 지식을 저버린 사람들이다. 그 결과 이 세상에는 진정한 경건이라는 것은 조금도 남아 있지 않다.’라고 말한다. 칼빈에 의하면 하나님은 오직 그의 말씀을 통해서만 나타나신다.

시편 119편 105절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빛이니이다”라는 말씀이 있다. 그리스도인의 삶이란 그리스도 예수와 연합하는 삶이요, 삶의 한 순간 한 순간을 그와 함께 걸어가는 삶이다. 그렇기에 우리의 삶이란 하나님의 말씀과, 그 안에서 사는 삶일 수밖에 없으며, 그것이 참된 영성의 기본이 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하나님을 명확히 알고 그분의 뜻을 알 수 있는 방법은 성경말씀이다. 목회자가 영성 훈련을 함에 있어서 반드시 필요한 훈련이 바로 말씀훈련이다. 하나님의 뜻을 명확히 구분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이다.

오늘날 한국 교회에서 사용되는 말씀훈련은 크게 세 가지로 구분된다. 첫째, 신구약 통독 훈련, 둘째, 성경공부 훈련 즉 말씀 묵상 훈련, 셋째, 성구암송 훈련이다.<sup>124)</sup>

심방과 많은 설교로 시달리는 한국 교회 목회자들에게 말씀 묵상은 힘든 일일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말씀 묵상을 게을리 해서는 안될 것이다. 목회자는 하나님의 음성을 바로 듣고 전달해주어야 하는 사명이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목회자에게 말씀 묵상은 필요 불가결한 것이다. 영성의 성장은 말씀을 통해 깨달은 진리를 통해서 그것을 행할 때 이루어지는 것이다.

## 2. 예배론에 나타난 칼빈의 영성

칼빈은 ‘참 종교는 유일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결속 시킨다’고 말하면서 예배를 제정한 이유를 말한다.<sup>125)</sup>

그러나 하나님은 자신의 권리를 옹호하기 위하여 자신을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며 만일 사람이 자기를 가공적인 신과 혼동한다면 가혹하게 복수하시는 분이라고 선언하셨다. 그래서 하나님은 인류로 하여금 순종하도록 하기 위해 합리적인 ‘예배’를 제정하셨다. 그리고 율법으로 말미암아 한 굴레가 인간에게 씌워져 저들로 하여금 악한 예배에 빠지지 못하게 하였다.<sup>126)</sup>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므로 인류로 하여금 순종하도록 하기 위해 ‘예배’를 제정하신 것이다.

정장복 교수는 예배를 “신을 신앙하고 숭배하면서 그 대상을 경배하는 행위 및 그 양식”이라고 정의한다.<sup>127)</sup> 이처럼 예배란 하나님께 최상의

---

124) 오성춘, 『광야의 식탁-영성개발을 위한 묵상훈련』 I 권 (서울: 홍익사, 1985), pp. 291-307.

125) John. Calvin, 『기독교강요』 1. 12. 1.

126) John. Calvin, 『기독교강요』 1. 12. 1.

가치를 드리는 즉 존귀와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행위로 표현하였던 것이며,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경배하는 것이며, 거룩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산 제물로 드리는 것이다.

우리는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그의 능력으로 새롭게 변화되는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예배는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일 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의 영적 갱신을 위한 영성 훈련의 가장 중요한 요소임을 자각하게 되는 것이다.

예배를 통해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받을 수 있으며, 그 안에서 그들은 진정으로 참된 영성을 배우고, 자라나게 하게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예배는 구약시대나, 신약시대나, 현재나, 미래에도 없어지지 않을 그리스도인의 능력이요 하나님께는 영광이다.

칼빈에게 있어서 영성의 제일 요소는 하나님은 영이시므로 영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이다. 그리고 예배의 영적 차원은 순종으로 표현된다. “참되고 올바른 예배의 주요 부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는 것이며, 순종을 제물과 제사보다 더 값지게 여긴다.”<sup>128)</sup> 그러므로 영적 예배로 이루어지는 영성은 본질적으로 인간의 내면적인 자세이며, 그 속성상 비가시적이고 외적 표현들로 판단될 수 없는 것이다.

### 3. 성례전에 나타난 칼빈의 영성

칼빈에게 성례는 말씀과 함께 또 다른 영성의 원천이었다. 성례는

---

127) 정장복, 『예배학 개론』 (서울: 종로서적, 1988), p. 7.

128) J. Bright, 『국제성서주석21』 안병무 역 (서울: 한국신학연구소, 1985), pp. 202-203.

주께서 우리에게 대한 하나님의 은혜를 외형적인 표징에 의해 확인하는 증거이며, 동시에 우리가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충성을 서로 증거 하는 것이다.<sup>129)</sup> 칼빈은 창세기 주석에서 이렇게 말하였다. “아브라함의 신앙은 별들을 봄으로써 증가되었다. 주님은 자신의 백성들에게 좀더 깊은 감명을 주고 그들의 마음을 좀더 효과적으로 꿰뚫기 위해 그의 말씀으로 그들의 귀에 이르고 난 후에 또한 외적 상징들로 그들의 눈에 대해 증거 한다.”<sup>130)</sup>

칼빈은 루터를 따라 교회의 영구적인 성례로 세례와 성찬을 들었다. 세례는 첫째로, 우리의 모든 죄가 도말되었음을 우리에게 확증해 준다. 세례는 단 한번 받는 것이지만 우리가 우리의 세례를 회상할 때마다 우리의 모든 죄가 씻어졌음을 확신하게 된다는 것이다.<sup>131)</sup> 둘째로, 죄가 우리를 지배하지 못하도록 한다. 우리가 육체의 감옥 속에 살고 있는 동안은 죄의 자취가 우리 안에 머물 것이다. 그러나 우리가 세례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약속을 굳게 믿을 때 죄가 우리를 지배하지 못할 것이라고 한다.<sup>132)</sup>

교회의 두 번째 성례는 성찬이다. 성찬은 첫째로, 우리가 그리스도와 결합된 것을 나타내는 상징인 동시에 보증이다. 둘째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하는 것을 나타내는 상징인 동시에 보증이다. 즉 성찬은 우리가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된 것을 나타낼 뿐 아니라, 그의 살이 우리의 양식이며 그의 피가 우리의 음료임을 나타내는 것이다.<sup>133)</sup> 마치 몸이 빵과 포도주에 의해 영양을 공급받듯이 그리스도의 살은 영혼의 양식이며 그의

129) John. Calvin, 『기독교강요』 4. 14. 1.

130) 이양호, “칼빈의 영성” *op. cit.*, p. 228.

131) John. Calvin, 『기독교강요』 4. 15. 3.

132) John. Calvin, 『기독교강요』 4. 15. 5.

133) John. Calvin, 『기독교강요』 4. 15. 5.

피는 음료이다. 우리는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통해 기적적인 교류에 이른다. “그가 인간의 아들이 됨으로써 우리를 그와 함께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했으며, 그가 땅으로 내려옴으로써 우리를 위해 하늘로 올라가는 것을 예비했으며, 우리의 가사성을 취하심으로써 우리에게 불멸성을 주었으며, 우리의 약함을 받아들임으로써 그의 권능에 의해 우리를 강하게 했으며, 자신에게 우리의 가난을 받아들임으로써 우리에게 그의 부를 전달했으며, 자신에게....우리의 불법의 짐을 취함으로써 그의 의로 우리를 옷 입혔다.”<sup>134)</sup>

“그리스도는 모든 성례전의 내용이며 생명력이다.”<sup>135)</sup> 이러한 점에서 우리는 성령뿐만 아니라 바로 그리스도의 몸이 성례전을 통해서 우리에게 약속되고 주어진다는 사실에 주의해야만 할 것이다. 비록 성례전이 우리의 믿음을 전체적인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고 그리스도의 단면으로 인도하지 않을지라도 그것은 역시 우리의 구원과 칭의의 근거가 그의 육체 안에 있음을 가르쳐 준다. 그것은 단순히 한 인간이 우리를 의롭게 하고 영적으로 살도록 한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 안에 깊이 감추어져 있는 증보자 안에 계시하기를 하나님이 기뻐하셨다는 것을 말한다.<sup>136)</sup>

#### 4. 기도에 나타난 칼빈의 영성

칼빈은 “우리는 증인으로서 주의 이름을 부를 때에, 우리는 우리의 경건을 증언 한다”<sup>137)</sup>고 말한다. 칼빈은 『기독교강요』 3부 20장에서 ‘기도’는 믿음의 최상의 실천이며 우리는 이것을 통해 매일 하나님의 은혜를

---

134) 이양호, “칼빈의 영성” *op. cit.*, p. 228.

135) John. Calvin, 『기독교강요』 4. 14. 16.

136) John. Calvin, 『기독교강요』 3. 11. 9..

137) John. Calvin, 『기독교강요』 2. 8. 23.



받는다고 설명하면서, 기도로 경건을 입증한다고 말한다.

하나님께서서는 특히 처음 세 기원을 요구하시며, 우리를 전적으로 자신에게로 이끄셔서 우리의 '경건'을 입증하신다. 그 다음에야 우리 자신의 일을 돌보도록 허락하시는데, 거기에는 제한이 있다. 즉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은혜는 모두 그의 영광을 나타내도록 한다는 의도가 없이는, 우리 자신을 위하여 아무 것도 구하지 말라는 것이다. 그 이유는 하나님을 위해서 살며 죽는 것보다 더 합당한 일이 없기 때문이다.<sup>138)</sup>

하나님께서서는 우리를 자신에게로 이끄시기 위하여 '기도'를 요구하시며, 그 '기도'를 통하여 우리의 '경건'을 보이게 하신다. 자신의 것이라고는 아무 것도 가지고 있지 않는다는 것을 아는 겸손한자의 제1의 기본적인 실천은 '기도'이다. 기도는 겸손한 자에게는 타당한 행위인데 즉, 그의 인간적 요구에서 기도의 영감을 발견하는 외침이다. 기도는 단순히 경건한 의식의 실천이 결코 아니다. 왜냐하면 기도는 감사의 형태이든 탄원 또는 고백의 형식이든 간에 모든 양심을 찾는 자 앞의 내적 감정의 분출이며 표현이다. 따라서 모든 기도는 겸손한 말이나 태도에서와 같이 표현될 수 있는 하나님 앞에서의 내면적 자세의 표현이다. 기도에 대한 바른 길은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진정한 사랑의 감정으로부터 나온다. 기도에는 훈련과 인내가 필요하다.

그리스도께서는 자기의 희생사역에 근거하여 우리를 위해 중보기도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우리의 기도가 효력 있게 하신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중보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때만 우리가 기도할 때 확신을 가질 수 있는 것이다.<sup>139)</sup> 그리스도의 희생 사역은 우리의 기도를 인준

138) John. Calvin, 『기독교강요』 3. 20. 44.

139) John. Calvin, 『기독교강요』 3. 20. 17.

하고 확실케 하는 효과를 가진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속량하시기 위해 흘린 피와 그가 드린 순종은 우리를 위한 계속적인 무릎을 꿇고 자기 백성을 위하여 간구하는 것으로 여기는 것이 아니고 단순히 하나님 앞에 나타나고 그의 죽음의 능력이 우리를 위한 영구적 중보의 효과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뜻한다.<sup>140)</sup> 우리의 기도들이 그리스도의 희생사역에 근거되어야 할뿐만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하나님께 우리의 기도를 전하며 응답되게 하신다는 것을 또한 확신해야 한다.

이 기도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배되고 이루어지며 고취되어야 한다. 즉 기도가 신앙의 순수한 연습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되어야 한다. 기도를 불러일으키는 신앙은 말씀에 의하여 생겨나고, 말씀의 약속들을 경험함으로써 더욱 생명력을 갖게 되는 것이다. 신앙훈련에 있어서는 자기 부정과 자기 억제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이 항상 지배적인 원리들이다. 우리가 우리의 욕구들을 절제하여 하나님이 말씀하실 것에 우리의 기도를 제한하지 않는 한 우리는 믿음으로 기도할 수 없다. 그것은 기도의 법칙이 신앙의 법칙을 따르기 때문이다. 칼빈은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들에서 성경의 말씀들을 그대로 사용할 것을 계속 권장한다.<sup>141)</sup> 기도는 하나님의 말씀위에 기초해서 담대하게 드러져야 하며 그래서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아가야 한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합당한 기도의 자세는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일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칼빈은 4가지의 법칙으로 상세히 서술하고 있다. 첫째, 하나님과 대화하려는 사람은 합당한 정신과 마음을 가져야 한다. 즉 사람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는 하나님 앞에서 불경건하고 무례한 자세를 버리고, 진정한 경건의 마음을 가지고 임해야 한다. 둘째, 우리

---

140) John. Calvin, 『기독교강요』 3. 20. 20.

141) John. Calvin, 『기독교강요』 3. 20. 34.

는 기도할 때 항상 자신의 무기력을 느끼며 우리가 구하는 모든 것이 얼마나 필요한가를 진심으로 생각해서, 그것을 얻고자 하는 진실한, 아니 강렬한 소원을 기도에 첨가해야 한다. 셋째, 기도하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서는 사람은 겸손하게 영광을 전적으로 하나님께 돌리며, 자기의 영광을 전혀 생각하지 않으며, 자기의 가치를 일체 생각하지 않아야 한다. 즉 자기 신뢰를 전적으로 버려야 한다. 겸손한 기도의 실례는 겟세마네에서의 예수님의 기도이다.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 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마26:39) 우리도 이와 같은 태도로, 진실하면서도 겸손하게 하나님의 뜻에 순복 하여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마 6:10)라고 기도해야 하는 것이다. 넷째, 이렇게 겸손한 마음에 의해서 기도하는 자가 압도되더라도, 동시에 우리의 기도에 대한 응답이 있으리라는 확고한 소망을 품고 기도하도록 용기를 내야 한다. 이런 용기가 있기 때문에 신자들은 무거운 죄의 짐에 아무리 심히 눌리고 고민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만하지 못하며, 하나님을 무서워할 죄과가 아무리 많을지라도 여전히 하나님 앞으로 나아간다. 또한 기억할 것은 하나님께서 불완전한 기도도 들어주시며,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의 용서가 있어야만 응답된다는 것이다. 그리고 신자들은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며, 그리스도께서는 영원불변한 중보자이시라는 것이다.<sup>142)</sup>

‘기도’는 우리의 경건을 고백하며, 경건을 입증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경건’은 항상 기도의 생활을 하는 것을 말하며,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 이어지는 것을 말한다.

---

142) John. Calvin, 『기독교강요』 3. 20. 4-20.

## 5. 복종과 섬김에 나타난 칼빈의 영성

복종은 칼빈이 말한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데서 시작된다. 칼빈에 의하면 그리스도인의 생활에 요구되는 내면적 자기부인을 실천하는 가장 좋은 방법들 중의 하나는, 우리 자신들이 힘써 이웃에 대한 사랑의 의무를 감당하는 것이다.<sup>143)</sup> 그리고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성화된 그리스도의 몸 된 지체들은 예수 그리스도 자신의 성화에서 성취되었던 죽음과 부활의 모형과 유사한 모형으로 자기들의 역사적 삶을 성숙시켜 주는 특별한 섭리에 복종한다. 이 목적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착정하시는 환난들을 칼빈은 십자가라고 부른다.<sup>144)</sup> 또한 칼빈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고난, 즉 십자가의 삶을 주시는 데에는 다른 목적도 있다. 즉 그들의 인내심을 시험하고 순종을 가르치시려는 것이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종들에게 부여하신 인내의 능력과 정절을 공개하심으로써 그들의 인내심을 시험 하신다’<sup>145)</sup>고 하면서 시험의 목적도 있음을 말한다.

복종은 훈련 속에서 자유를 가질 수 있어야 한다. 복종에 대한 성경의 가르침은 피차 복종하는 마음을 가지라고 한다. 복종할 때 자유로이 이웃을 소중히 여길 수 있다. 자기 권리를 포기할 때 해방과 자유함이 있다. 원수를 사랑하고 나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는 것은 자유를 뜻한다. 이러한 복종의 삶의 모범은 바로 예수님이시다.<sup>146)</sup>

복종의 삶을 살기 위해 섬김으로 자기 부인의 삶을 살고 예수님의 삶이 내 안에 이루어지도록 기도한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순종을 통

143) John. Calvin, 『기독교강요』 3. 7. 7.

144) 정용철, “칼빈을 통하여 본 한국목회자의 영성이해.” (미간행 석사학위논문,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 2000), p. 55.

145) John. Calvin, 『기독교강요』 3. 8. 1.

146) 엄세천, 『영성신학개론』 (서울: 기독교 한국연수원, 1986), pp. 161-166.

한 영적 권위를 증가시키도록 기도하며 살아야 한다.<sup>147)</sup>

복종은 훈련 속에서 자유를 가질 수 있어야 한다. 복종에 대한 성경의 가르침은 피차 복종하는 마음을 가지라고 한다. 복종할 때 자유로이 이웃을 소중히 여길 수 있다. 자기 권리를 포기할 때 해방과 자유함이 있다. 원수를 사랑하고 나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는 것은 자유를 뜻한다. 이러한 복종의 삶의 모범은 바로 예수님이다.<sup>148)</sup>

진정한 영성은 복종과 섬김의 훈련을 통해 나타난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 앞에 복종하는 삶이 바로 섬김의 삶을 기억해야 할 것이다.

## 6. 청빈에 나타난 칼빈의 영성

성경은 모든 것이 하나님께 속한 것이지 인간의 것이 아니라고 말한다. 인간의 소유욕과 재물욕 때문에 복잡한 혼란이 일어난다. 예수님께서서는 재물이 우상이라고 선포하셨다.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고 하면서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하셨다.(눅 16:13) 사도바울은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딤후 6:10)라고 했으며, 탐심은 우상숭배라고 했다.(엡 5:5) 바울은 부자들에게 소망을 두지 말고 하나님에게 두며 나누어주기를 좋아하라고 충고하면서(딤후 6:17-19), 자신은 궁핍과 풍부를 모두 만족할 줄 안다(빌 4:12)고 했다.

청빈 훈련은 내가 소유한 모든 소유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쓰시기를 원하는 곳에, 그리고 궁핍한 형제, 자매들에게 언제든지 나누어주는 청지기 훈련이다. 청빈은 물질의 속박으로부터의 자유요, 치레는 명예이다. 청빈은 내적인 기쁨과 안정을 가져오나 치레는 근심과 불안을 가져온다.(전 7:20) 청빈은 내면의 본질이 외부 생활양식에

---

147) *Ibid.*, p. 166.

148) *Ibid.*, pp. 161-166.

결과를 맺는 것이다. 청빈의 내면과 외면은 다같이 중요하다. 청빈은 물질의 노예상태에서 내부적으로 해방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물질을 분수에 맞게 쓰는 것을 말한다.

청빈 훈련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물질을 선물로 받아들이도록 해준다. 움켜쥐어야 할 우리 것이 아니라 남들과 자유로이 나누어 가질 선물로 여기는 것이다. 청빈 훈련의 중심은 먼저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이다.<sup>149)</sup>

청빈한 삶은 목회자로 하여금 영적 자유 함을 더해준다. 교회를 지도하고 인도하는 목회자는 자신의 이익을 추구함으로 사탄의 울무에 걸려서는 안 될 것이다. 그러기에 청빈한 삶을 살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

## 7. 고독에 나타난 칼빈의 영성

고독이란 말은 외로움과 혼동하여 이해되기도 한다. 사실 고독이라는 말과 은둔자라는 말은 ‘혼자 있다’라는 뜻의 라틴어 솔루스(solus)에서 유래되었다. 여러 시대 동안 영적인 삶을 살고자 했던 많은 사람들이 은둔의 삶을 살기 위해 광야나 산이나 깊은 산속 같은 외딴 곳으로 떠나갔다.<sup>150)</sup>

예수님은 사역 중에도 한적한 곳을 찾아서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을 가지셨다. 그러한 기도의 시간 또한 고독의 시간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고독이란 단순한 외로움에서 발전되어 진정한 자아를 찾고, 그리스도인에게서 고독이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한 영성 계발의 시간이다. 그리고 그것은 깊은 영성에 잠기는 영적 시간이다. 아마도 우리의 영적인 성숙을

---

149) *Ibid.*, pp. 153-157.

150) 박한, *op. cit.*, p. 101.

위해 가장 중요한 한 가지 요소를 이야기하라면 그것은 고독의 시간일 것이다. 고독과 침묵은 하나님과 인간관계의 모든 국면을 회복시켜 개인의 삶 속에 통합시키는 근본적인 조건이다.<sup>151)</sup>

그리고 이 고독은 다른 사람들과 분리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과 깊이 연합하게 된다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 세상의 것을 떠나 홀로 선 자기 고독 속에서 자기를 반성하며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갖는 것은 오히려 다른 사람들에 대한 애정을 가져다주고 더욱 더 세상을 향해 사랑으로 나아가게끔 하는 원동력이 된다.

고독은 우리의 현존의 삶과 전혀 관계가 없는 상태가 아니라 현존적 자아를 더욱더 깊이 성찰하게 만들뿐만 아니라 공동체 속에 있는 자신의 정체성과 역할을 인식함으로 다른 사람들까지도 이해하게 되며 그들에게 애정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영성 훈련의 시간이다.

목회자들은 그리스도께 더 나아가기 위해서 외적인 현상들의 고리로부터 벗어난 내면의 감각을 가지고 현존적 삶을 깊이 있게 묵상함으로써 자신의 현존적 삶에 필요한 영성을 소유할 수 있다.

## VI. 결론

### A. 요약

지금까지 칼빈의 신학사상에 나타난 영성을 이해하기 위해서 성서의 영성에서부터 고대 교부들의 영성을 비롯해서 동방교회의 영성, 서방교

---

151) Norman. Schawchuck, 『영성훈련 지침서』 오성춘, 황화자 역 (서울: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출판국, 1991), p. 22.

회 즉 카톨릭 교회의 영성, 수도원 영성, 종교개혁자들의 영성, 근대영성, 현대영성을 살펴보았다. 그런데 영성 이해에 있어서 근본적인 공통점이 있다. 그것은 그들의 시대와 지역과 교회배경이 다르다 하더라도, 그들의 영성의 목표가 하나님과의 합일의 삶, 즉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성 회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칼빈은 중세말의 새로운 경건과 인문주의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으면서도 그것을 극복하는 새로운 개혁주의 영성전통을 만들어 내었다.

칼빈의 신학과 영성에 대한 이해는 개혁주의 전통에서 소중한 유산으로 현재에까지 이어지고 있음을 살필 수 있었다. 특히 칼빈의 후예인 개혁교회와 WARC는 현재의 에큐메니칼 영성에 있어서도 WCC영성과 대부분을 공유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다음은 칼빈의 영성에 대한 전반적인 배경과 내용들을 살펴보았다. 칼빈의 영적 생활은 “하나님 앞에서”(Coram Deo)와 “하나님께만 영광”(Soli Deo Gloria)라는 말로 요약할 수 있다. 그는 그리스도인은 평생 동안 하나님과 대화를 나누면서 생활하도록 훈련되어 있어야 하며 그 자신의 모든 활동에 대하여 하나님께 보고하고 그 모든 의도가 하나님께 고정되어 있어야 하고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길임을 말하고 있다. 바로 이 점이 그의 영성이 어떤 길에 거하고 있는지 알려 주는 중요한 단서라고 생각한다. 그에게 있어서 오직 삶의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라면, 오늘날을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의 성화의 적용과 훈련은 그 영광을 만들어 내는 우리의 영성이 되어야 할 것이다.

칼빈은 중생한 그리스도인의 삶의 의의를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이고 설정하는데 이는 구체적으로 ‘자기 부정’, ‘십자가를 지는 것’, ‘내세에 대한 묵상’, ‘현세의 선용’, ‘오직 하나님께 영광’으로 표현되어야 한다고 보았다. 칼빈은 영성생활의 핵심은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 삶이라



고 했다. 그리고 그리스도와 연합된 삶을 살아야 한다고 했다.

또한 현대 목회자들이 본받아야 할 칼빈의 목회와 이러한 삶을 살도록 돕기 위해 영성훈련방안을 제시했다. 첫째 말씀이다. 칼빈에 의하면 하나님은 오직 그의 말씀을 통해서만 나타나신다. 따라서 하나님의 존재하심을 느끼기 위해 지속적으로 말씀을 묵상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둘째 예배다. 예배란 현실을 체험하고 생명과 접촉하는 일이며, 모인 회중들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느끼고, 경험하는 일이라고 했다. 셋째 성례전이다. 칼빈에게 성례전은 말씀과 함께 또 다른 영성의 원천이다. 성례는 주께서 우리에게 대한 하나님의 은혜를 외형적인 표징에 의해 확인하는 증거이며, 동시에 우리가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충성을 증거 하는 것이다. 넷째, 기도다. 칼빈은 “우리는 증인으로서 주의 이름을 부를 때에, 우리는 우리의 경건을 증언한다.”고 말한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자신에게로 이끄시기 위하여 ‘기도’를 요구하시며, 그 ‘기도’를 통하여 우리의 ‘경건’을 보이게 하신다. 다섯째, 복종과 섬김이다. 칼빈은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 데서 복종과 섬김이 시작된다고 했다. 한국교회 목회자들은 복종과 섬김이라는 용어보다는 권위와 다스림이라는 단어에 익숙해 있다. 그러나 목회자의 본연의 모습은 바로 복종과 섬김이다. 따라서 목회자는 예수님의 복종과 섬김을 늘 기억하고 성도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삶을 살아야 한다고 제안했다. 여섯째 청빈이다. 청빈 훈련은 내가 소유한 모든 소유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쓰시기를 원하는 곳에, 그리고 궁핍한 형제, 자매들에게 나누어주는 청지기 훈련이다. 청빈한 삶은 목회자로 하여금 영적 자유함을 더해준다. 부요하고 사치스러울 때 목회자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청빈한 삶을 사는 것은 하나님께서 모든 소유의 주인이심을 고백하는 것이며 그러한 삶을 살기 위해 청지기의 삶을 살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했다. 일곱째, 고독이다. 고독

은 단순한 외로움에서 발전되어 진정한 자아를 찾고, 하나님을 만나기 위한 영성 계발의 시간이다. 그리고 깊은 영성에 잠기는 영적시간이기 때문에 목회자에게 필요한 훈련이다.

목회자는 그 삶이 영성적이어야 한다. 영성은 곧 삶의 영성이기 때문이다. 목회자의 영성은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과의 교제를 온전히 이루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의 전 삶의 영역에서 주로 고백하며 성숙한 영성의 추구를 힘쓰는 자들을 도울 뿐 아니라 목회자 먼저 스스로 하나님 앞에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며, 그리스도를 따르는 본을 보여야 하겠다. 이것이 이 시대뿐만이 아니라 미래의 목회자들이 진정으로 추구하여야 할 영성이라고 생각한다.

## B. 칼빈의 영성과 현대목회의 전망

오늘날 한국교회와 성도들은 영성에 갈급함을 느끼고 있다. 그리고 앞으로의 미래사회는 더욱 영성을 요구하는 사회가 될 것이다. 그러나 문제는 이와 같은 영적인 갈급함을 목회자가 온전히 충족시켜주지 못하고 있다는 데 있다. 영성의 문제는 무엇보다도 한국교회 목회자 문제로 접근된다. 영성적 목회는 목회현장에 활력과 새 힘을 불어넣을 것이지만 영성 없는 목회는 목회의 기초를 흔들어 놓을 것이 분명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본 논문을 시작하였다.

16세기의 대표적인 신학자로 불리운 칼빈은 원래부터 한사람의 신학자이기보다는 그 자신이 참된 경건에의 열렬한 추구자로서 인식되기를 원했다. 그의 대표 저서로 꼽히는 『기독교 강요』는 “참된 경건을 훈련받게 할 기본적 원리를 제공”하려는 것 외에 다른 목적이 아니었다. 칼빈은 근본적으로 영성을 하나님의 창조질서와 인간 속의 하나님의 형상의

회복으로 폭넓게 조망했기 때문에 참 경건은 하나님이 세우신 원래적인 모든 질서를 회복하는 것을 의미했다. 칼빈의 이러한 포괄적 관점은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세상에의 참여와 봉사를 강조하는 매우 독특한 개혁주의적 영성을 확립시키게 된다.

현재 우리시대의 목회현장은 성서의 하나님의 창조구원의 실재를 반복하고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며, 예수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로 회심과 회개의 풍족한 신앙고백의 목회실천이 전혀 성공하고 있지 못하다는 아쉬움이 더 많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강하고 확실한 자기 인식이 하나님의 경외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지도 못하며, 칼빈의 생활실천의 영성이 신앙실천으로 인식되지도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목회적 과제를 끌어안고 아직도 영성적인 강력한 파괴력을 인식하지도 못하고, 포스트 모던 시대의 개별적이고 자유방임적인 실체와 인간의 허약성과 죄 성을 연결 이해하고 있지도 못한 채 갈등과 방황만을 거듭하고 있다고 보여 진다.<sup>152)</sup>

이러한 목회 상황적 문제점들과 과제들은 다시 모던도 포스트 모던도 아닌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었던 엄격함과 절대 기준들이 되살아 나와야하며 허약하고 죄 성에 찌 들린 인류에게 강하고 담대한 그리스도교성이 인박하도록 훈련해야만 한다.<sup>153)</sup>

현대 목회는 영성목회이다. 특별히 영성시대를 맞이해 목회자가 영성가가 될 때에 이상적인 목회는 가능할 것이다. 목회의 기술보다 기본에 충실하며 교회 본래의 모습으로 돌아가 목회의 본질을 회복하게 될 때, 교회는 성장하게 될 것이고 목회자는 보람을 느끼게 될 것이다. 교회가 교회

---

152) 황금봉, “현대 그리스도인을 향한 종말론적 예수의 가치 기준과 경제적 디아코니아 실천의 상관관계 고찰.” 『신학과 목회』 제13집(1999): p. 185.

153) *Ibid.*

의 본질인 영성을 회복하고 목회의 영성이 자리 잡기 위해서는 목회자의 영성적 훈련이 전제이며 필수적 요건일 수밖에 없다. 목회자가 영성훈련을 통해 목회영성을 자리매김하게 될 때에 영성목회가 가능하게 될 것이다. 목회자의 영성은 현대 교회의 생명이며 영성적 훈련은 목회자의 생명이다.

칼빈의 영성목회가 인간의 모든 효과적인 노력과 방법들을 폭넓게 수용하면서도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강력한 영력을 갖게 된 비결이 바로 영성훈련에 있다고 하겠다. 이런 강력한 영력이 오늘의 목회현장에 새롭고 유익한 전망을 주는 것이라고 확신한다.

“하나님 앞에서”(Coram Deo)와 “하나님께만 영광”(Soli Deo Gloria)을 우선순위에 둔 칼빈의 영성과 진정한 예배와 영성의 회복을 통해서 인간의 본질과 목적을 실현하려고 노력했던 칼빈의 비전은 더한층 귀중한 대안으로 우리에게 다가온다. 종교적 신비와 초월에 대해 새로운 관심을 느끼기 시작한 포스트모더니즘의 현대사회에 칼빈의 영성은 매우 시급한 기독교의 목회자들의 대안과 처방이 되어줄 수 있을 것이다.

# 참 고 문 헌

## 1. 국내 문헌

- 김명룡, 『열린신학 바른목회론』 서울: 장로회신학대학교출판부, 1997.
- 류기종, 『기독교 영성』 서울: 열림, 1994.
- 민경배, 『영성의 역사적 뿌리』 서울: 연세대출판사, 1985.
- 박근원, 『현대 신학 실천론』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1998.
- 엄두섭, 『기독교 영성의 흐름』 서울: 은성, 1998.
- 엄세천, 『영성 생활』 서울: 기독교한국 연수원, 1986.
- \_\_\_\_\_, 『영성신학개론』 서울: 기독교 한국연수원, 1986.
- 오성춘, 『광야의 식탁-영성개발을 위한 묵상훈련』 I 권 서울: 홍익사, 1985.
- 이상운, 『목회학』 서울: 대한예수교장로회출판국, 1992.
- 이양호, “칼빈의 영성” 『기독교의 영적 스승들』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1996.
- \_\_\_\_\_, 『칼빈: 생애와 사상』 서울: 한국신학연구소, 1997.
- 이주영, 『현대목회학』 서울: 성광문화사, 1985.
- 이형기, 『세계교회사(II)』 서울: 한국장로교출판사, 1994.
- \_\_\_\_\_, 『종교개혁신학사상』 서울: 장로회신학대학교출판부, 1984.
- 정범모, 『교육과 교육학』 서울: 배영사, 1976.
- 정성훈, 『종교개혁과 칼빈의 영성』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2000.
- 정용석, “기독교 영성-개론적 고찰” 『기독교 영성의 역사』 서울: 은성, 1997.
- 정장복, 『예배학 개론』 서울: 종로서적, 1988.

한국칼빈학회 편, 『칼빈 신학과 목회』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1999.

\_\_\_\_\_, 『칼빈 신학 해설』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1987.

\_\_\_\_\_, 『칼빈연구』 서울: 한국장로교출판사, 2003.

홍성주, 『21세기 영성신학』 서울: 은성, 1995.

## 2. 번역본

Bloesch, Donald G. 『경건의 위기』 이용원 역 서울: 소망사, 1996.

Bouwsma, William J. 『칼빈』 이양호, 박종숙 역 서울: 도서출판 나단,  
1993.

Bright, J. 『국제성서주석21』 안병무 역 서울: 한국신학연구소, 1985.

Calvin, John. 『기독교강요』 이종성 공저 서울: 생명의 말씀사, 1994.

\_\_\_\_\_. 『칼빈의 경건』 이형기 역 서울: 크리스찬다이제스트, 1998.

Cully, Iris V. 『영적 성장을 위한 교육』 오성춘, 이기문, 류영모 공역 서  
울: 예장총회교육부, 1986.

Dorr, Donal. 『영성과 정의』 황종렬 역 왜관: 분도출판사, 1990.

Dupre, Louis. Sailors, Don E. 『기독교영성Ⅲ』 엄성옥, 지인성 역 서울: 은  
성, 2001.

Göhler, Alfred. 『칼빈의 성화론』 유정우 역 서울: 한국장로교출판사,  
2001.

Gollwitzer, H. 『신학의 연대성』 박종화 역 서울: 대한기독교출판사, 1983.

Gonzalez, Justo L. 『중세교회사』 서영일 역 서울: 은성, 1993.

Holmes, Urban. T. 『목회와 영성』 김외식 역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1988.

Holt, Bradley P. 『기독교 영성사』 엄성옥 역 서울: 은성, 1996.

Houghton, Sidney M. 『기독교 교회사』 정중은 역 서울: 나침판, 1998.

McGinn, Bernard. Meyendorff, J. Leclercq, Jean. 『기독교영성 I』 유해룡

- 외역 서울: 은성, 1997.
- Rait, Jill, McGinn, Bernard, Meyendorff, J. 『기독교영성Ⅱ』 이후정, 엄성  
옥, 지형은 공역 서울: 은성, 1998.
- Richard, Joseph. 『칼빈의 영성』 최정희 역 서울: 기독교문화사, 1986.
- Richards, Lawrence O. 『신앙 성숙과 영성 훈련』 지상우 역 서울: 여수  
룬, 1989.
- Niesel, Wilhelm. 『칼빈의 신학』 이종성 역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1973.
- Schawchuck, Norman. 『영성훈련 지침서』 오성춘, 황화자 역 서울: 대한  
예수교장로회 총회출판국, 1991.
- Oden, Thomas. 『목회신학』 오성춘 역 서울: 대한예수교장로회 출판국, 1987.
- Thurneysen, Eduard. 『목회학 원론』 박근원 역 서울: 성서교재간행사, 1997.
- Wallace, Ronald S. 『칼빈의 말씀과 성례전 신학』 정장복 역 서울: 장로  
회신학대학교출판부, 1996.
- \_\_\_\_\_. 『칼빈의 사회 개혁 사상』 박성민 역 서울: 기독교문  
서선교회, 1995.
- Wallker, Williston. 『세계기독교회사』 강근환, 민경배, 박대인, 이영현 역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1993.
- Weismayer, Josef. 『넉넉함 가운데서의 삶』 왜관: 분도출판사, 1996.

### 3. 원서

- Bloesch, Donald G. 『The Crisis of Piety』 William B. Eerdmans  
Publishing Company, 1968.
- Calvin, John. 『Institutes of the Christian Religion Philadelphia: The  
Westminster Press, 1960.
- Niesel, Wilhelm. 『The Theology of Calvin』 (Pennsylvania: The

Westminster Press, 1956.

Walker, Williston. 『A History of the Christian Church』 New York: Charles Scribner's Sons, 1985.

#### 4. 정기, 비정기 간행물 및 학술지

유해룡, “기독교 영성의 뿌리.” 『교육교회』 10월호 (1993): 57.

\_\_\_\_\_, “영성목회에 대한 진단과 제언.” 『신학과 문화』 제5집 (1996): 250.

이수영, “갈뱅에 있어서의 경건의 개념.” 『교회와 신학』 27집(1995): 263, 348.

최태영, “칼빈의 신학과 영성” 영남신학대학교 2003년 신학대학원 강의안.

황금봉, “포스터 모던 시대와 영성의 기독교 교육.” 『2004년 영성대학 자료집』 대구: 경북노회 에큐메니칼 영성훈련원, (2004): 1.

\_\_\_\_\_, “현대 그리스도인을 향한 종말론적 예수의 가치 기준과 경제적 디아코니아 실천의 상관관계 고찰.” 『신학과 목회』 제13집(1999): 185.

#### 5. 논문

김규식, “영성운동의 교회사적 이해를 통해 본 칼빈의 영성이해.” 미간행 석사학위논문, 장로회신학대학원, 1998.

박 한, “21세기 교회 영성에 대한 조망.” 미간행 석사학위논문, 총신대 신학대학원, 2003.

임동락, “패러다임 전환의 관점에서 본 사회봉사의 신학적 이해.” 미간행 석사학위논문, 장로회신학대학교 신학대학원, 1998.

정용철, “칼빈을 통하여 본 한국 목회자의 영성이해.” 미간행 석사학위논문,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 2000.



6. 사전

정인찬, 『성서 대백과』 (서울: 기독지혜사, 1981), p. 81.

Wakefield, Gordon S. 『기독교 영성 사전』 서울: 은성, 2002.

Driver, S. R. and Briggs, Charles A. 『Hebrew and English Lexicon of the Old Testament by Francis Brown, S. R. Driver and Charles A. Briggs』 Oxford, 1953.